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유복한 귀족 가문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던 소년이 있었다.

공작인 아버지는 엄했지만 아내를 더 없이 사랑해 가정에 충실했고, 공작 부인은 병약했지만 봄꽃처럼 온화하고 상냥했다.

“보렴, 아가. 네 여동생이란다. 넌 이제 오빠가 된 거야.”

소년이 여섯 살이 되던 해, 여동생이 태어났다.

작고 어여쁜 동생이 단풍잎처럼 작은 손으로 오빠의 새끼손가락을 움켜쥐고 웃었을 때.

소년은 꼭 좋은 오라비가 되리라 다짐했다.

다정한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여동생.

소년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리라 생각했다.

공작 부인이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 전까지는.

“송구합니다, 각하.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할 방도 또한 없습니다.”

제국의 모든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공작은 절망하며 정사에서 손을 놓고 매일같이 신전을 찾았다.

그는 무릎 꿇은 자리의 대리석이 닳도록 신을 찾아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그 정성이 갸륵했던 것일까.

<무엇이든? 정말 무엇이든 줄 테야?>

공작의 부름에 누군가가 답했다.

그 목소리는 공작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다.

<네 아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대가로 너의 그 끓는 불처럼 타오르는 감정을 주렴.>

공작은 망설임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받쳤다.

그렇게 기적처럼 공작 부인은 병상을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공작에게 아내는 이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였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건.

“당신, 어딘가 달라졌어요.”

그가 이 세상 전부를, 모든 감정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변해 버린 남편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둑질한 아이의 손목을 자른다고요? 배고파서 빵을 훔친 아이예요, 여보. 온정을 베풀면 영지민이 안도할 거예요.”

때로는 설득을.

“이제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지민들은요!”

때로는 간청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당신은 감정도 없어? 원래, 안 이랬잖아. 전에는...”

때로는 비난을.

“차라리... 그때 죽어버릴걸. 그럼 당신이 이런 끔찍한 인간이란 걸 모른 채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끝내 체념했다.

그날 밤, 공작 부인은 독을 마셨다.

“엄마, 엄마. 코 자?”

중독되어 새파랗게 시들어가는 어미가 낮잠을 자는 줄 알고, 어린 딸은 멋모르고 공작 부인의 품에 안겼다.

그러다 잠결에 어미가 남긴 독이 든 홍차에 입을 대고 말았다.

모녀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건 이미 독이 온몸에 뿌리를 내린 후였다.

“각하... 해독제를 한 병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과 아가씨, 한 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내와 딸의 생명을 저울에 올린 선택 앞에서도 공작은 망설임이 없었다.

“독으로 망가진 몸으론 다신 후사를 배지 못할 테지. 아이를 살려라.”

그렇게 소년은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관 덮개를 덮은 소년에게 남은 건 이제.

“오뺘. 나랑 노올자. 웅?”

그의 소매를 붙잡고 봄꽃처럼 웃는 여동생뿐이었다.

“그래, 내 동생.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갖게 해줄게.”

동생은 한 해 한 해, 만개하는 여름 장미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성품은 독을 품은 가시처럼 오만하고 잔악했다.

“오빠. 북부의 첨탑에 유폐되었다는 그 황자 말이야.”

그럼에도 그에겐 동생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해서.

“나, 그 황자를 가지고 싶어. 고양이 같아서 정말 귀여워.”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 가여운 황자님을... 황제로 만들면, 황자님이 날 봐줄까?”

동생의 욕심이 도를 넘어 스스로의 목을 졸라도.

“오빠, 그분이... 그분이 릴리 공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끔찍해. 차라리 그 여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결국 여동생이 사랑에 눈이 멀어 릴리 공녀를 독살하려 했을 때도 남자는 동생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공녀의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니, 사형에 처한다.”

그리하여 동생의 목이 단두대 아래에서 잘렸을 때, 그 역시 아버지처럼 세상과 감정을 잃었고.

“난 그냥 내 동생이 웃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남자는 텅 비게 된 삶의 목적을 복수로 채웠다.

그의 악행이 도를 넘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 걷게 될 길은 피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동생이 사랑했던 남자와 그 남자가 사랑한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

이 이야기에서 남자는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한다.

왜냐면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앞을 가로막는 흑막 악당이었으니까.

악당의 이름은 샤렌 프랑.

그리고 흑막 악당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여동생의 이름은...

“사샤.”

“...”

“정신이 들어?”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끙끙 앓는 신음을 냈다.

눈앞이 점점 선명해지면 내 침대 곁에 자리를 잡은 오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흐트러진 결 고운 분홍 머리칼과 보랏빛 눈동자.

오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살피다가 내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헤나에게 듣기론 네가 앞마당에서 놀다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를 맞고 기절했다고 하던데.”

돌덩이...

그래, 기억나다마다.

나뭇가지로 개미집을 들쑤시며 노는 내 머리통 위로 주먹만 한 돌덩이가 날벼락처럼 떨어져 내렸다.

얼마나 아팠는지 이번 생의 주마등은 물론 전생의 주마등까지 봐버렸다.

나는 힘없이 누운 채 오빠에게 속삭였다.

“...마.”

목이 잠겨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응? 뭐라고?”

오빠가 얼굴을 내게 들이밀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오빠의 등을 마구마구 때리며 울부짖었다.

“으이구, 잉간아, 잉간아! 인생 그렇게, 킁, 살지 마!”

“뭐? 아야, 사샤, 아파.”

순하디순한 샤렌은 도망치지도 않고 내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주었다.

때리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는 오빠 때문에 나는 더 서러워졌다.

“흐어엉. 흐콰하지 마! 흐콰하지 말란 마리야!”

“흐콰? 그게 뭔... 알았어, 사샤. 뭔지 몰라도 흐콰가 싫단 말이지? 사샤가 싫어하는

건 눈에 띄지도 않게 치워 버릴게. 그러니까, 울지 마.”

“킁, 훌쩍.”

“울지 말고 웃어줘, 사샤. 응?”

내 앞에서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순하게 웃는 오빠가 미래의 흑막 악당이라니.

못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리다니.

울지 말라는 샤렌의 간청에도 나는 결국 오빠의 소매를 붙잡고 목 놓아 울어버렸다.

내 나이 여덟 살.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를 맞고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 나는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다.

이 세계는 전생에 내가 읽던 소설 속.

내 오빠 샤렌은 그 소설 속 흑막 악당.

그리고 나는 소꿉친구인 남주를 탐내다 여주인공을 독살하려 하고, 그마저도 실패해 사형을 당하는 악역 공녀였다.

패악 부리는 공녀, 레이디 사샤 프랑.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꿈과 희망이 없는 게 뭔지 아는가?

이 소설의 장르가 로맨스 판타지라는 거다. 그냥 로맨스 판타지가 아니라, 앞에 ‘괄호 열고 피폐, 괄호 닫고’가 붙는.

얼마나 피폐하냐면, 외전에서 재앙으로부터 제국을 구하려다 실패한 여주가 능력을 모두 소진해 죽어버린다.

여주의 죽음으로 남주를 비롯한 서브 남주가 반쯤 미쳐 본래도 망해가던 제국을 폭정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마디로 내 두 번째 인생은 X 된다는 거지, 뭐.

여주랑 절친되기, 참 쉽죠?

소설 <실낙원>은 여주인공 릴리아나가 ‘부패’라는 재앙으로부터 제국을 구하는 내용의 로맨스 판타지다.

정의롭고 상냥하며 정화의 이능을 지닌, 모두의 구원자 릴리아나 슈테인.

그에 비해 나는 샤렌을 흑화시키기 위해 본편 초반에 잠깐 등장했다 처형당하는 조연에 불과했다.

게다가 <실낙원>은 성인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내가 아는 건 무척 한정적이었다.

하나. 사샤와 남주인 아벨이 소꿉친구라는 것.

둘. 사샤가 남주를 독차지하기 위해 그의 유폐 기간이 연장되도록 뒷공작 했다는 것이었다.

-아벨. 널 찾아와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그런 말로 사샤는 아벨을 탑에 꽁꽁 묶어둬 길들이려고 했다.

반면 여주인 릴리아나는...

-나랑 탑 밖으로 나가자.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데! 아마 보면 깜짝 놀랄걸?

남주가 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그에게 바깥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준다.

아벨의 첫 친구.

음울한 탑을 찾아온 첫 손님.

처음 접해본 타인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샤 프랑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벨은 릴리아나 슈테인을 선택한다.

그녀가 바로 그의 구원자였으니까.

‘아마 사샤의 애정은 사랑이라긴보단 집착이었을 테지.’

하여튼 본편에서 릴리아나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벨과 무사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완결을 맞는다.

그리고 후에 외전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주가 제국을 구하려다가 죽어버린다고? 뭐 이런 병신 같은 결말이...

세계관이 좀 음울한 로맨스 판타지였는 줄 알았던 <실낙원>은 알고 보니 (피폐)로맨스 판타지였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생이 너무 바빠 외전을 챙겨보진 못했는데, 설마 몰랐지.

내가 이 피폐 로맨스 판타지에 환생할 줄은!

“...막장도 이런 막장 결말이 어딨냐고.”

“사샤, 방금 뭐라고 말 했어?”

맞은편에 앉은 오빠가 안경알 너머로 힐끗 날 살피며 물었다.

달리는 용차(龍車) 안에서 멀미도 안 나는지 내내 서류를 살피던 샤렌이었다.

혹시 방해했나 싶어 나는 딴청을 피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훌쩍.”

실내라지만 한겨울 추위가 매서워 절로 콧물이 났다.

내가 자꾸 코를 먹자 오빠가 손에서 펜을 놓고 안경을 벗었다.

“추운가 보네. 볼이 빨개.”

그러더니 두르고 있던 담비털 목도리를 벗어 내 목도리 위에 감아주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장갑까지 벗어 따듯한 맨손으로 내 양 뺨을 감싸기까지.

“어때, 좀 괜찮아?”

“우응.”

내 대답에 길게 뻗은 나른한 눈매가 초승달 모양으로 예쁘게 접혔다.

나와 똑같은 제비꽃 색 눈동자에 따듯한 온기가 어렸다.

하녀들이 봤으면 이 미소를 땔감 삼아 추운 겨울을 맨몸으로 날 수도 있을 거라고 평했을 거다.

나는 질 수 없다는 듯 얼른 장갑을 벗어 내 뺨을 감싼 오빠의 큰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쌌다.

샤렌의 눈이 크게 뜨였다.

“오빠도 이제 따듯해?”

“...응. 손도 마음도 너무 따듯해. 우리 사샤가 최고야.”

그렇게 속삭인 후, 오빠가 별안간 날 번쩍 들어 올렸다.

“으앗!”

그러곤 날 제 무릎 사이에 앉히곤 털코트 안에 꽁꽁 감춰 빼꼼 얼굴만 내밀게 했다.

나는 눈을 끔벅였다.

샤렌의 키가 훌쩍 큰 탓에 나는 어미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간 아기 캥거루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사샤를 어떻게 혼자 보내지. 외로워서 죽을지도 몰라.”

“오빠. 나 이제 어린애 아닌데. 벌써 여덟 살이란 말야. 그리고 혼자 아니니까 안 외로워.”

“사샤 말고. 내가 외로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샤렌이 깊은 한숨을 내쉬곤 내 머리에 턱을 괬다.

정수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앞으로 삼 개월 동안 오빠 얼굴을 못 볼 테니까.

나는 지금 겨울을 맞이해 북쪽에 있는 겨울 별장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에 적을 둔 귀족들은 대부분 겨울이면 북쪽 별장으로 향한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왜 북으로 가냐고?

바로 남쪽에서부터 진행된 부패의 잿더미가 겨울 남풍을 타고 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땅을 죽게 하고, 동물을 흉포하게 만들며 끝내 사람조차 미치게 만드는 재앙, 부패.

그건 일종의 바이러스다.

겨울이면 오염된 남부의 재가 바람을 타고 수도를 덮치는데 노약자나, 어린애들의 건강에 좋지 않았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샤렌과 함께 북부 별장으로 피신을 갔다.

그런데 올해는 오빠가 본격적으로 가주 일의 배우기 시작한 터라 수도의 저택을 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사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외로워.”

머리맡에서 우울하게 젖은 샤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코트 밖으로 손을 빼내 샤렌의 손등을 토닥토닥해 줬다.

그리고 예의상 한마디 했다.

“나도외로워죽을것같아.”

“말이라도 고마워.”

...이런. 너무 영혼 없이 말했나.

나는 창밖을 내다보는 척 머리통에서 느껴지는 오빠의 집요한 시선을 무시했다.

마침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겨울에 몇 마리의 야생 용이 날아가는 게 보였다.

새삼 신기한 마음에 용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전생을 기억한 후, 가장 신기해했던 게 마법과 용의 존재였다.

이 세계에서 용은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었다.

얼마나 흔하냐면, 말이 끄는 마차 대신 용이 끄는 용차가 더 대중화됐을 정도로.

게다가 사람들은 누구나 수호룡이라는, 일종의 파트너 용을 소유했다.

나 역시 아직 부화하지 않았을 뿐 나만의 수호룡 알을 지니고 있었다.

“소가주님, 이제 곧 벨바르 영지입니다.”

마차를 수호하던 오빠의 호위 기사 카렌 경의 보고였다.

날 껴안은 오빠의 팔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삼 일에 한 번씩 꼭 오빠한테 편지하고. 나도 매일 편지 쓸게. 편식하지 말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해. 잘 때 배 내놓지 말고 이불 덮고 자고. 그리고...”

나는 한창 일장 연설을 하는 오빠의 소맷자락을 잡아당겼다.

샤렌은 말을 하다 말고 기꺼이 몸을 굽혀주었다.

나는 웃는 얼굴로 이를 악물고 오빠의 귀에 소곤거렸다.

“으빠, 증말 층피하게 왜 으래.”

뭐가 창피해하냔 얼굴로 날 보는 샤렌에게 뒤쪽을 턱짓했다.

내 전속 하녀 헤나부터 시작해서 본가에서 딸려 보낸 고용인 열세 명.

거기에 카렌 경을 비롯한 네 명의 기사가 우리의 기나긴 작별 인사를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기사들.

카렌 경을 따라 소가주를 호위하러 왔다가 졸지에 내 호위 기사가 되어 겨울 별장에서 삼 개월을 체류하게 된 그들의 표정은...

꼭 누명을 써 유배라도 당한 것 같았다.

“아, 그렇지. 사샤, 헤나에게 가 있을래? 오빤 우리 사샤를 지켜줄 기사님들한테 몇 가지 사정을 설명할 게 있어서.”

“응!”

역시 오빠도 기사들에게 내심 미안했나 보지?

땅이 빙판이라 한 발 한 발 살금살금 걸어 헤나에게 향했다.

기사들은 성큼성큼 걸어 금방 샤렌에게 다가갔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울부...”

응? 방금 뭔가 살벌한 말이 들린 것 같은데?

내가 막 뒤돌아 샤렌의 표정을 살피려던 때였다.

“아가씨.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헤나가 주우욱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며 내 앞까지 왔다.

“어휴, 수도도 추웠지만 여기는 더 춥네요.”

헤나가 수다스럽게 말을 하며 내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매만져 주었다.

다행히 오빠의 말은 길어지지 않았다. 잘 설득됐는지 기사들은 아까보다 기합이 들어간 얼굴로 각을 맞춰 척척 내 뒤에 섰다.

“사샤. 이제 진짜 작별이네.”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남이 우울해하는 건 굉장한 파괴력을 지녔다.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오들오들 떨던 하녀들이 “소가주님...” 하고 안타깝게 속삭였다.

“작별은 무슨. 삼 개월 후에 만나잖아. 그보다 빨리 허리 숙여 봐.”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허리를 숙인 오빠의 목에 내 목도리와 오빠의 목도리를 모두 둘러주었다.

“조심해서 가. 알겠지?”

그제야 샤렌의 표정이 활짝 폈고, 하녀들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소가주님...!” 하고 울부짖었다.

“사샤... 이 목도리는 내년 봄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돌려줄게.”

필요 없어.

봄에 털목도리라니, 끔찍했다.

입을 삐쭉 내미는 나와 눈을 맞추기 위해 샤렌이 무릎을 굽혔다.

“우리 사샤를 돌봐줄 베르망 후작 부인께서도 금방 도착할 거야.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알겠지?”

“응.”

오빠는 한참 날 바라보다가 꼭 껴안았다.

"아, 진짜 집에 가기 싫다."

가출 청소년처럼 중얼거린 샤렌이 마침내 포옹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년 봄에 아빠랑 같이 마중 올게.”

아빠가 마중을 오다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샤렌을 위해 마냥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샤렌이 용차가 아닌 그의 수호룡 해피에 기승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해피의 푸른 비늘의 반짝임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무슨 고민 있으세요?”

“으응, 새 친구들을 사귀려니까 좀 떨리네.”

“아, 그렇죠. 올해는 소가주님이 함께 머무시는 게 아니니 아마 여기저기서 초대장이 오겠네요.”

겨울마다 북쪽으로 피신을 오는 건 주로 나이 많은 귀족이나 아주 어린 귀족 자제들이다.

여주인공인 릴리아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원작대로라면 사샤는 티타임 따윈 지루하다며 어린 귀족 영애들의 티타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녀의 취미는 무려 사냥이었다.

사렌에게 선물받은 지룡을 타고 활을 맨 채 매번 별장의 뒤편으로 난 작품 숲을 쏘다녔다.

그러다 발견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낡은 탑에 유폐된 3황자, 아벨을.

나는 멀리 고지가 높은 언덕에 우뚝 솟은 낡고 음침한 첨탑을 바라봤다.

저곳에 남주가 있다. 몹쓸 병에 걸려 요양 중이라 알려진 아벨 아르하드 페르넨이.

“...아가씨?”

탑을 올려다보는 내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걸까. 헤나가 의아하게 날 불러 세웠다.

나는 금방 시선을 갈무리하며 얼어붙은 손을 휴대용 손난로로 녹이며 물었다.

“티타임 초대장, 내가 보내도 되겠지?”

원래 티파티 초대장 같은 건 집안의 안주인이 준비하는 것이다.

내 보호자로 오는 베르망 후작 부인을 기다렸다 부탁할 수도 있지만, 초조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

“아가씨께서 직접 준비하시면 상대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느 가문 앞으로 준비할까요?”

“슈테인 공작 가문.”

눈을 동그랗게 뜨는 헤나를 향해 나는 야무지게 대답했다.

“그 가문에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는 내 또래의 영애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어쩐지 올해는 맘이 잘 맞을 것 같아.”

나는 생글 웃으며 첨탑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샤렌을 위해서라도 남주와는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뿐인가. 외전 엔딩을 막기 위해선 여주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의 레벨 업이 필요했다.

그들의 능력을 아는 나라면 원작보다 일찍 능력을 각성시켜 레벨 업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걸 위해서라도 여주와 친분을 만드는 것 꼭 필요한 일이었다.

여주 주변으로 남주도 서브 남주도 모일 테니까.

원작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7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천하의 둘도 없는 여주의 딸랑이라도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주는 거들떠보지도 말고, 여주랑 친구 먹으면서 레벨 업 시키고.’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살면 샤렌이 흑화할 이유도 없고.

레벨 업한 여주가 무사히 제국을 구하기만 하면 모두 모두 해피 엔딩!

완벽한 엔딩 플랜이었다.

여주랑 절친되기, 참 쉽죠?

“헤나, 나한테 답장 온 거 없어?”

릴리아나에게 티타임의 초대장을 보낸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답장이 왔어도 진작 왔어야 했는데, 어쩐 일인지 묵묵부답이다.

“당연히 있죠. 아가씨 앞으로 네 통이나 답신이 와 있답니다.”

헤나가 은쟁반에 꽃분홍 편지를 네 통 담아 내게 주었다.

재빨리 발신인을 확인했다.

샤렌 프랑, 샤렌 프랑, 샤렌 프랑, 그리고 또 샤렌 프랑.

나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네 개의 편지 중 하나만 펴 보았다.

장장 다섯 장이나 되는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했다.

요는, 내가 보고 싶어 죽겠고, 자기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 안부 편지였다.

나는 아주 짧게 답장을 주었다.

절로 한숨이 흘렀다.

‘너무 들이댄 게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였나.’

무조건 여주 칭찬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끝을 낸 초대장의 내용이 오히려 반감을 샀을지도 모르겠다.

베르망 후작 부인에게 초대장의 내용을 확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은 마차를 타고 오다 지병인 허리 통증이 도져 아직 이곳 벨바르 영지까지 오지도 못했다.

나는 단 두 글자로 끝을 낸 답장을 헤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붙여줘.”

“네, 그런데 아마 내일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부터 눈보라가 심해서요.”

눈보라?

나는 그제야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상에.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걸까.

창밖 세상이 온통 새하얬다. 북쪽 영지가 원래 눈이 많이 온다지만,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한참 창밖만 내다보다가 눈보라 사이로 이상한 게 보여 눈을 가늘게 떴다.

“...헤나. 네가 보기에 저기 담 위에 있는 게 뭐인 것 같아?”

“담 위에요? 글쎄요. 담 위에 딱히 있을 만한 게, 어머나 세상에.”

나와 헤나는 눈을 끔벅이며 높다란 저택 담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용...?”

“사람...?”

우리 둘이 동시에 말했다.

둘 다 정답이었다.

담 위에 서 있는 건 용에 기승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용이 담 안쪽으로 펄쩍 뛰어내려서...?

“어라? 지금 이 저택으로 오는 거야?”

내가 물었지만 헤나는 답을 주지 않았다.

어느새 나간 건지, 열린 문틈으로 헤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둑이야! 저택 내에 용을 탄 도둑이 들었어요!”

“뭐? 용을 탔다고? 침입자다! 침입자가 저택에 침입했다!”

“용을 탄 침입자라고? 적습이다! 무장 암살자가 침입했다!”

“공녀님을 지켜라! 공녀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나는 멀리서 메아리치는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마를 짚었다.

침입자는 기사들에 의해 손쉽게 제압되었다. 아니, 사실 침입자는 반항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놀랍게도 생각보다 어린 소년이었다. 이제 열세 살은 되었을까.

화사한 금발이 꼭 쥐 파먹은 것처럼 엉망이었다.

‘누구지?’

맵시 있게 다리를 감싼 방한용 승마복 값비싸 보였지만, 물려 입기라도 한 것처럼 낡았다.

도통 상대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다.

침입자의 팔을 등 뒤에서 잡고 있던 기사가 위엄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프랑 가문에 침입한 이유가 뭐지?”

“정문이 닫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었을 뿐이에요.”

“...?”

뭐지. 이 당당한 도둑놈은?

구경 나온 사용인들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침입자를 쳐다봤다.

맑은 벽안을 깜박이면 멀뚱히 있던 침입자가 아차, 싶었는지 외쳤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을 안 했네.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초대?

그 말에 침입자를 결박하던 기사가 찔끔했다.

만약 정말 초대 손님이라면 귀족일 텐데, 귀족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터였다.

“잠깐 손 좀 놔 줄래요? 외투 안쪽 주머니에 초대장이 있는데...”

침입자가 눈이 잔뜩 묻은 털외투 안에 손을 넣고 꼼지락거렸다.

“응? 어라, 분명 여기서 넣어뒀는데...”

기사들의 표정이 다시 살벌해졌다. 이런 뻔한 개수작에 넘어간 게 창피한 모양이었다.

“네 이놈! 감히 프랑 가문의...!”

“혹시 프랑 영애를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절 티타임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응? 나?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아가씨?”

“아냐, 난 이런 정신 나간 애 초대한 적 없어. 내가 초대한 건...”

금발에, 벽안, 내 또래의 여자아이... 인데.

“...”

금발에 벽안... 이네?

나는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 릴아아나? 릴리아냐 슈테인?”

꿀꺽.

설마 아니겠지.

“어어. 그게 내 이름이긴 한데, 프랑 영애를 뵐 수 있을까?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맙소사.

원작아! 7년 전 여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이렇게, 우적, 어릴 줄은, 꿀꺽. 몰랐어. 우적. 우와, 그런데 이 쿠키 진짜 맛있다. 고급이라서 그런가?”

맞지, 고급 쿠키?

“...어, 응.”

나는 반쯤 넋이 나가서 내 앞에서 맹렬하게 쿠키 한 박스와 밀크티를 먹어치우는 여주님을 바라봤다.

내가 아는 릴리아나 슈테인은 7년 후의 릴리아나 슈테인이다.

7년 후의 릴리아나는 우아하고, 늘씬하고, 정의감 넘치고, 유쾌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이 이렇게 선머슴 같고 뭐랄까... 단순할 줄이야.

'하긴. 남주를 탑에서 구한다고 탑을 폭파시킨 위인이지.'

생각해 보면 그 장면에서 떡잎이 보였던 셈이다.

그나저나 어떻게 환심을 사지. 초면에 면전에 대고 정신 나갔다고 말도 해버렸는데.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녀가 아쉬운 눈으로 빈 쿠키 그릇을 보는 걸 보고 슬그머니 물었다.

“쿠키 좀 더 줄까?”

“...!”

릴리아나의 눈이 반짝였다.

“프랑은 참 다정하구나.”

“응?”

“...게다가 똑똑해.”

“...?”

“초대장에 맞춤법 하나 안 틀리고, ‘배상’이라는 어려운 말도 알잖아. 나는 그래서 프랑이 여덟 살인 줄 몰랐어.”

릴리아나가 날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게다가 다정하고 똑똑하게 봐주면 친구 하기 더 쉽지, 뭐.

나는 헤나를 시켜 방금 구운 쿠키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그걸 릴리아나쪽으로 밀어주며 최대한 미안한 기색을 담아 속삭였다.

“우리 가문의 기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선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괜찮아. 익숙하니까.”

...그런 게 익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야말로 티타임에 초대해 줘서 고마워. 예전엔 초대장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아무도 날 초대해 주지 않더라고.”

어쩐지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거운 거라곤 은스푼밖에 쥐어 본 적 없는 또래의 귀족 영애들이 보기엔 지금의 릴리아나는 좀 많이... 야성적이었다.

승마복이라곤 티 타임에 바지를 입고 오질 않나.

머리칼도 무척 짧아서 겉보기엔 사내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말을 하는 릴리아나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그럼 주로 뭘 해? 3개월이나 체류하는 거잖아.”

듣기로는 릴리아나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녀를 돌봐줄 친척 어른이 없어 겨울마다 홀로 별정에서 지낸다고 들었다.

열 살이면 한창 친구가 필요한 나이일 텐데.

“공부해.”

“...공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나는 눈을 깜박였다. 릴리아나가 쑥스럽다는 듯 쿠키를 오물거리며 뺨을 긁적였다.

“응, 내가 멍청해서 배워야 할 게 무척 많거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원래도 그리 길진 않았지만, 머리칼이 이렇게까지 짧아진 것도 사실 공부하다가 깜박 졸아서 머리카락이 촛불이 닿아 타버린 탓이거든.”

탄 부분을 잘라내다 보니 이렇게 짧아졌지 뭐야.

릴리아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리카락이 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졸면서 공부하다니. 이제 겨우 열 살인데.’

슈테인 공작이 이렇게 자식 교육에 열이 올리는 사람이었나?

원작에서는 공명정대하다고 엄격한 성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암만 머리카락이 탔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엉망으로 잘라놓다니.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웠다.

저렇게 예쁜 금발인데.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해 나는 지나가듯 의미 없는 칭찬을 던졌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니, 대단하다. 게다가 여기까지 혼자 온 거지?”

“응? 아니야,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고생은 내 수호룡이 했는걸...”

릴리아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가로저었다. 꼭 칭찬받는 게 어색한 아이처럼.

이상한 일이다.

릴리아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룡(地龍)를 소유하고 ‘정화’의 능력이 있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인공이다.

‘당연히 이런 칭찬에 익숙할 줄 알았는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쩍 칭찬을 더 던졌다.

“아까 담에 올라왔던 게 혹시 네 수호룡이야? 그렇게 높은 담을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지룡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멋지다!”

역시나! 용에 대한 칭찬이 정답이었는지 릴리아나의 두 뺨이 발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한참 손을 꼼지락거리다가 슬쩍 입을 열었다.

“그럼... 볼래?”

“응?”

“내 용. 우리 모모.”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건 릴리아나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끄럽다는 듯이 뺨을 붉히는 그녀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반짝여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곧장 릴리아나의 수호룡이 있는 용사로 향했다.

원작에서처럼 릴리아나의 용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바깥의 추위도 잊고 한참이나 들여다볼 정도로.

그녀의 용은 지룡으로, 몸과 뿔이 온통 새하얀 수사슴 같았다.

뿔에는 지룡의 힘을 상징하는 보옥이 꽃봉오리처럼 다섯 개나 맺혀 있었다.

릴리아나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 얼굴을 살폈다.

“진짜...”

“...진짜?”

“지이이이이짜! 완전 멋있어!”

“...정말? 이상하지 않아? 온통 새하얘서 다들 무섭다고 했거든.”

“무섭긴! 나 이렇게 아름다운 지룡은 처음 봐. 대단하다, 릴리!”

“...릴리?”

아차. 너무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애칭을 말해버렸네.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릴리아나가 기분이 상했는지 고개를 푹 숙였다.

“어, 저기, 슈테인. 방금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 프랑.”

릴리아나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다.

야, 왜 그래, 릴리아나. 우리 방금까지 제법 분위기 좋지 않았니? 왜 그렇게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나도, 나도 사샤라고 불러도... 될까?”

슬쩍 고개를 든 릴리아나의 얼굴과 귀, 목덜미가 온통 새빨갰다.

게다가 왜 저렇게 눈이 촉촉하지? 우, 우는 건 아니겠지?

“어, 그, 그럼. 되고 말고. 어... 우린, 음... 친구잖아.”

“친구...?”

“응. 그것도 절친.”

“...”

앗, 역시 너무 갔나?

한참 후, 릴리아나가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응?

“너무 좋아. 나, 친구 생긴 것도 처음이고... 누가 날 릴리라고 불러준 것도 처음이야.”

으응?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사샤랑 친구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못나서 사샤가 싫어할까 봐... 말을 못 했는데.”

릴리아나의 얼굴은 이제 거의 터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새빨개져 있었다.

나는 슬쩍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어억!”

“사샤. 너무 좋아!”

주려다가 릴리에게 껴안기 공격을 당해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다행히 푹신한 지푸라기 위로 넘어진 터라 다치진 않았다.

나는 용사의 천장을 보며 날 꼭 안은 채 움직일 생각을 않는 릴리아나의 등을 쓸어주었다.

여주랑 절친 먹기.

참 쉬웠다.

나는 삐뚤빼뚤 적힌 릴리의 답장을 보고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꾹꾹 눌러쓴 글씨에서 그녀의 흥분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릴리아나 아가씨께서 오신다고 하던가요?”

“응. 그러니까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달콤한 디저트로 준비해 줘.”

“네, 주방장에게 실력 발휘 좀 하라고 할게요.”

헤나가 재빨리 주방장에게 릴리아나의 티타임 참가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이 사뭇 들떠 보였다.

과연 여주인공이라고 해야 할까. 겨울 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릴리리아나를 좋아했다.

그녀는 밝고 솔직했으며, 누구에게나 구김살 없이 웃어주었다. 꼭 사람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강아지처럼.

특히 릴리가 벽안을 반짝이며 달콤한 디저트를 바라볼 때면, 하녀들은 그녀에게 쿠키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사샤를 만난 후론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할까.”

지난 삼 주 동안, 릴리를 만난 건 총 네 번.

매일매일 티타임 초대장을 보냈는데 만난 건 고작 네 번에 불과했다.

물론 릴리가 나를 피한 건 아니다. 그저 그녀의 학업이 너무 바빴을 뿐.

그래, 바로 그 학업이 문제였다.

-릴리, 너 손목이 왜 그래?

세 번째 티타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에클레어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릴리의 손목에 퍼런 멍이 든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헤나에게 약을 가져오라 시켰다. 손목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소매를 걷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릴리의 양팔은 시커먼 멍투성이이었다.

-나 검술 훈련도 받고 있는걸. 선생님이 이런 걸 영광의 상처라고 부른대.

태평한 릴리의 대답에 나는 눈만 깜박였다. 내가 아는 릴리아나의 수업만 해도 열 손가락이 넘었다.

정치, 용술, 지리, 역사, 전술...

모두 귀족 영애의 소양은 아니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따로 검술 훈련도 받는다고?’

그것도 이렇게 팔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돼?

-음... 잠잘 때 하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사샤의 티타임에 초대됐을 때.

그전에 조금씩 한다는 얘기인가?

코코아가 담긴 잔을 기울이며 릴리의 공부 시간을 셈해 보았다.

대충 한 시간씩 한다고 하면 하루에...

-그때 빼고는 전부 공부하고 있어.

-풉, 콜록, 콜록.

결국 분홍색 드레스에 코코아를 뿜고 말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깃펜을 만지작거렸다.

보통 열 살 귀족 영애들은 보살핌 받으며 놀고먹는 게 그들의 일인데.

릴리는 매일 고3 수험생처럼 하루 열두 시간이 넘도록 학업에 매진한다니.

원작에 나오지 않았던 그녀의 유년 시절이 이렇게 치열한 줄은 미처 몰랐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 싶은데, 따지고 보면 이건 슈테인 가문의 일이다. 게다가.

“릴리는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는걸.”

릴리는 내게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다.

게다가 원작에서도 어린 시절이 괴로웠다는 언급조차 없었지.

어쩌면 내 걱정과 달리 릴리에겐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나는 애써 찜찜한 마음을 떨치며 릴리의 편지를 갈무리했다.

“사샤! 노올자!”

창밖이 소란스러웠다.

슬쩍 내다보니 오늘도 승마복을 입은 릴리가 모모에 기승한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릴리? 추운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 와.”

“응! 그런데 그전에 모모랑 놀지 않을래? 모모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태워줄 수 있대!”

음, 어쩔까.

강한 힘을 가진 수호룡은 대체로 자존심이 강해서 제 주인 외에는 태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분주하게 차려지는 티타임 세트와 창밖의 릴리를 번갈아 보았다.

잠시 고민했지만, 곧 드레스에 두꺼운 외투만 덧입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릴리에게 줄 것도 있었으니까.

“사샤, 내 뒤에 앉아서 날 꽉 잡고 있으면 돼!”

내가 나오자마자 릴리는 나는 덥썩 안아 모모 위에 올려주었다.

나는 모모의 등허리를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보슬보슬한 순백의 털이 손에 부드럽게 감겼다.

“사샤, 준비됐어?”

곧 릴리가 내 앞에 올라탔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꾹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 출발해!”

우리가 기승하기 쉽도록 바닥에 엎으려 있던 모모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순간 높이가 훅 높아지더니 꼭 말을 탄 것처럼 가벼운 리듬감이 느껴졌다.

“모모는 되게 힘이 센가 봐. 아직 어린 데 사람을 두 명이나 태우네.”

나는 잊지 않고 틈새 칭찬을 날렸고.

“모모는 나랑 달리 할 줄 아는 게 엄청엄청 많거든.”

릴리의 귓바퀴가 금세 붉어졌다.

보지 않아도 릴리의 표정을 알 것 같았다. 아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겠지.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모모를 칭찬해 줄 때 더 기뻐 보였으니까.

‘귀엽긴.’

나는 속으로 히쭉 웃었다.

릴리가 나보다 두 살 많긴 하지만, 전생의 기억 때문일까.

나는 종종 릴리가 나이 차 많은 여동생처럼 느껴졌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구 칭찬해 주고 싶은데, 릴리의 키가 커 손이 닿지 않은 탓에 나는 입으로만 칭찬 공격을 퍼붓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틈을 노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릴리를 위한 깜짝 선물!”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걸 짠, 하고 꺼냈다.

힐끗 고개를 돌린 릴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예 몸을 돌려 앉았다.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붉은 벨벳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릴리의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쥐여 주었다.

“어서 열어봐.”

릴리는 얼떨떨한 얼굴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꽃잎이 섬세하게 세공된 작은 보옥이 달린 머리핀이었다.

예쁘기도 예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공된 붉은 보옥이었다.

저건 바로 용의 마력이 담긴 봉인석이었다.

물론 이 정도 봉인석이야 슈테인 가문에서도 손쉽고 구할 수 있을 테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봉인석과의 상성이었다.

상성이 잘 맞는 봉인석은 용의 힘을 일찍이 각성시키고 그 주인이 수호룡의 마력을 보다 손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꽤 유용한 아이템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상성’, 즉 상성이 맞는 봉인석을 찾으려면 벼락 맞을 확률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물한 ‘로즈석’은 릴리와 상성이 무척 좋다. 확신할 수 있었다.

왜냐면 7년 후에 아벨이 릴리에게 아주 운 좋게 그녀와 상성이 맞는 봉인석을 선물하는데, 그게 바로 저거거든.

동부 코나르 광산에서 발견되는 상급의 로즈석.

어디서 생산되는지 알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내게는 램프의 요정 샤렌이 있으니까.

-오빠! 나 갖고 싶은 게 있어!

이 한마디면 못 얻을 게 없지. 후후.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원래는 남주가 머리핀을 직접 꽂아 주며 예쁘다고 말하면 릴리가 감정적 동요를 느껴야 하는데.’

하지만 미안하다, 남주야.

이번 생에서 그 포지션은 내가 먼저 선수 칠게!

이게 다 릴리의 힘을 원작보다 빠르게 성장시켜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니.

“어때, 마음에 들어?”

“응응! 너무 예쁘다! 사샤의 분홍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얘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했네.

“널 위한 선물이라니까?”

“...나?”

릴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치만, 난 머리도 짧아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건 나랑 안 어울리는데. 좀 창,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고, 얘가 또 이런다.

릴리는 대체로 밝고 기운 넘치지만,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차 없을 때가 있었다.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

“아냐. 분명 잘 어울릴 거야. 네 머리칼이 햇볕 아래에서 얼마나 예쁘게 반짝이는데! 이리 줘봐. 내가 해줄게.”

나는 얼른 핀을 손에 쥐고 릴리의 머리에 달아주었다. 그러자 릴리가 태엽이 다 풀린 장난감처럼 우뚝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때를 위해 챙겨온 손거울로 릴리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자, 어때? 예쁘지!”

“...으응. 아, 물론 핀이, 머리핀이 예쁘다는 거야!”

“너도 예뻐, 릴리. 머리핀 꽃이랑 무척 잘 어울려.”

생긋 웃으며 말하자 릴리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갑, 갑자기 막 더운 것 같아. 봄, 봄이 오려나 봐.”

...아직 한겨울이야. 정신 차려, 릴리.

“열, 열 좀 식혀야겠어.”

그러고 릴리는 기절하듯이 스르륵 모모 위에서 떨어져 내렸다.

아래에 푹신한 눈이 깔려 있어 다치진 않았겠지만, 얼굴을 눈에 문댄 터라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괜찮아! 나, 튼튼한 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는걸.”

릴리가 빼꼼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그 와중에도 혹시 머리핀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한 손으로 조심히 받치고 있는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왔다.

봄이 온 것 같다더니, 정말 릴리의 뺨이 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샤아, 킁, 벽이 막 움직이고 이써. 으, 벽이 무너진다.”

걸렸다, 감기.

릴리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비몽사몽한 눈으로 헛소리를 해댔다.

“벽이 무너지려고 하면 내가 잽싸게 받쳐줄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푹 쉬어.”

나는 열이 오른 릴리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며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한동안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내 고른 숨소리가 손님방을 울렸다.

나는 릴리가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고 있는 머리핀을 빼 협탁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좋을까.’

릴리가 마음에 들어 하니 다행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한 게 아니라 좀 찔렸다. 아니, 사실 많이.

방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헤나가 재빨리 내 뒤에 따라붙었다.

“베르망 후작 부인께서 슈테인 가문에 서신을 보냈어요. 슈테인 영애가 갑자기 열이 올라 오늘 댁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은?”

“...”

“헤나, 답변.”

“알겠다고... 내일 릴리아나 아가씨의 학업 스케줄에 늦지 않게만 돌려 보내달라고만 했대요.”

“하.”

자기네 아가씨가 몸져누웠다는데, 당장 달려오진 못할망정, 뭐?

내일 스케줄에 늦지 말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이것들이 진짜.

당장 오빠를 시켜 슈테인 공작에게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칠 생각이었다.

이런 교육열이 공작의 뜻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몰아붙이는 건 그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랬다면 부패의 재를 피해 일부러 딸아이를 북쪽에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아가씨.”

씩씩거리며 내 방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헤나의 부름에 나는 걸음을 우뚝 멈춰 세우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가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망설이듯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뭔가 끔찍한 일을 예감한 사람처럼.

“릴리아나 아가씨에 대한 거예요.”

릴리아나가 눈을 떴을 때, 사방이 깜깜했다.

아니,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외딴 섬의 등불처럼, 초 하나를 켜두고 안락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샤의 모습이 보였다.

릴리는 어쩐지 안도가 되어서 옅은 주홍빛으로 물든 사샤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분홍 머리에 제비꽃 색 눈동자가 어여쁜 내 친구 사샤.

미열이 남은 머리가 아직도 어질어질했지만 릴리는 저도 모르게 헤헤 웃고 말았다.

그러다 뒤늦게 뭔가를 깨닫고 번쩍 상체를 일으켰다.

“늦었다!”

“릴리?”

세상에. 이렇게 깜깜해질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자다니!

릴리가 허겁지겁 일어나 옆에 곱게 놓인 제 옷을 급하게 챙겨 입기 시작했다.

“사샤, 지금 몇 시야? 선생님이 저녁 전에는 돌아오라고 했는데.”

“릴리.”

“나, 등불 하나만 빌려줄래? 모모가 밤눈이 밝긴 한데 아무래도-”

“릴리!”

잠옷 드레스 아래로 바지를 꿰어 입던 릴리는 다리가 꼬여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사샤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으니까 다시 자.”

“하지만...”

“베르망 부인이 이미 너희 가문으로 서신을 보내 놨어. 네가 열이 나서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쉬고 간다고.”

릴리는 눈만 깜박이며 사샤에 손에 이끌려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이거 꿈인가?

달콤한 사탕을 입안에 한가득 넣은 것 같았다.

릴리는 사탕이 녹아 사라질까 두려워하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응.”

“...사샤랑 같이?”

“응. 그보다 릴리, 왼쪽 다리 좀 들어줄래?”

릴리는 멍한 얼굴로 사샤가 제 왼쪽 다리에 걸쳐진 승마 바지를 낑낑거리며 벗기는 걸 바라보았다.

곧 그녀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주었을 때 릴리는 깨달았다.

꿈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건 솜사탕처럼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 입안에서 굴려도 녹지 않는 엄청나게 큰 사탕이었다.

입안이 자꾸 간질거렸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속삭였다.

“나, 친구 집에서 자는 거 처음이야.”

릴리 옆에 제 잠자리를 준비하던 사샤가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웃고는 릴리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 보니까 나랑 사샤랑 잠옷도 똑같아.’

커플 잠옷이네. 헤헤.

너무 행복해서 자꾸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게도, 너무 들떠서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릴리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촛불에 의지해 뭔가를 쓱쓱 써 내려가는 사샤의 옆얼굴을 말똥말똥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샤의 티타임 초대장이 도착하고 참석 허락을 받기까지 일주일.

눈보라가 치는 날, 릴리의 가정교사는 어디 혼자 찾아갈 수 있으면 가보라며 티타임 참석을 허락해 주었다.

그날 거친 눈보라를 뚫고 프랑 가문을 찾아간 건, 지금껏 한 일 중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릴리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사샤, 뭐 하고 있어?”

릴리가 엎드려 누워 양발을 까딱까딱 흔들며 물었다.

거침없이 펜을 움직이던 사샤의 손이 멈췄다.

“슈테인 공작님께 항의 편지를 쓰고 있었어.”

“...슈테인 공작님? 어, 우, 우리 아버지 말하는 거야?”

사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혹시 내가 너무 형편없는 친구라서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릴리는 덜컥 겁부터 먹었다.

“왜, 왜...?”

“네 다리.”

사샤의 깃펜 끝이 스커트 자락에 반쯤 감춰진 릴리의 다리를 가리켰다.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종아리에 있는 상처 말이야.”

움찔. 릴리의 다리가 떨렸다.

사샤의 말대로 그녀의 종아리에는 회초리로 매를 맞아 살이 찢어지고 터진 흉터가 남아 있었다.

평소에는 승마복 바지에 가려졌지만, 사샤의 잠옷이 릴리에게는 짧아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건... 내가 멍청해서 선생님의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릴리.”

사샤가 릴리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불빛에 비치는 앳된 이목구비가 꼭 어른의 것처럼 엄격했다.

“이건 부당한 거야. 그 누구도 널 이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이건 그냥 학대에 불과해.”

그녀는 단호하게 그러나 충분히 나긋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네가 공작님께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신걸.”

“뭐?”

촛불이 흔들려 사샤의 얼굴에 진 그림자가 깊어졌다.

릴리는 어쩐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은 느낌에 주저주저 사샤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지 않아도 돼. 나 같은 거 신경 쓰느라 사샤가 시간 낭비-”

훅. 별안간 사샤가 촛불을 불어 껐다. 순식간에 사방이 깜깜해졌다.

눈만 깜박이는 릴리의 귀로 사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잘래.”

사샤는 그대로 펜과 종이를 내팽개치고 릴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누웠다.

“...”

어, 이게 아닌데.

“사, 사샤, 혹시... 혹시 나한테 화났어?”

등을 돌린 사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어깨 움직임을 보고 릴리는 사샤가 잠든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친구가 생긴 건 처음이라, 화가 난 친구를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몰랐다.

게다가 왜 화가 났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똑바로 누워 곰곰이 고민하던 릴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아버지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샤는 내 첫 친구니까 말해줄게.”

사샤가 믿어주지 않아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친구에게는 비밀을 만들지 않기.

그게 릴리가 여태까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모모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아버지가 말하길, 나한테 특별한 힘이 있대.”

릴리는 가만히 제 손을 바라보았다.

제국을 수호하는 녹음의 용, 세레네카 님께 받은 부패를 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의 힘.

어려서부터 그녀의 아버지는 줄곧 말했다.

릴리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고, 그 힘은 제국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몇백 년 전부터 이어진 부패의 재앙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태어난 거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해주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제국을 구해야 한대. 그런데 제국을 구하려면 배워야 하는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거야.”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샤가 돌아봐 주는 걸까.

차마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릴리는 천장만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제국을 구하려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물었다.

“릴리 너는... 힘들지 않아? 이 모든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재앙에 맞서는 제국의 방패, 은나무 가지의 슈테인.

부패가 처음 제국에 싹튼 순간부터 그녀의 가문은 재앙에 대항하기 위해 항상 앞장섰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양,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해서 릴리는 제 의무가 너무 버겁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다만 아주 가끔은-

“나는 화가 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이상한 기분에 느껴져서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너무 너무 속상해서 지금 당장 슈테인 공작을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모조리 뜯어주고 싶어.”

그럴 때는 한밤중에 모모를 찾아가 그 애의 털에 뺨을 비비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았다.

“너를 매질한 가정교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런데 왜일까.

릴리는 처음으로 모모가 없어도 소란스러운 마음이 따듯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네가 매질을 당하는데도 보고만 있던 사용인들을 모조리 해고시키고 싶어.”

릴리는 용기 내 사샤를 돌아보았다.

사샤는, 울고 있었다.

깜짝 놀라 릴리가 얼결에 사과부터 했다.

“사샤... 우, 울지 마. 내가 잘못-”

“잘못했다고 하지 마!”

딱.

뭔가가 이마에 세게 부딪히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샤의 손이었다.

“네가 그 말을 하면 난 너무너무 분해서 너한테 꿀밤을 먹여주고 싶어진다고!”

이미 때렸잖아...

릴리는 이마를 쥐어 잡고 한참 끙끙거렸다.

사샤가 거칠게 눈가를 닦고 릴리로서는 처음 듣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릴리. 나랑 계속 친구하고 싶어?”

릴리는 고민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 그럼 릴리랑 계속 친구 해줄게.”

“응응! 뭐든지!”

“이 세상에서 릴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줘.”

“...나를?”

“너 보고 바보 같다고 하지 말고, 매를 맞는 걸 당연하다 여기지도 마. 나 같은 거라고 말도 금지야. 그리고 네 탓이라고 하지 말기.”

한 가지라고 말했으면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다.

그러나 릴리는 불만을 말하는 대신 사샤의 모든 조건을 정신없이 암기했다.

“그렇게 할게. 사샤가 계속 내 친구로 있어주는 한, 꼭 그렇게 할게.”

“언제나 네가 제일 첫 번째야, 릴리. 아빠보다도, 나중에 생길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심지어는 제국을 구하는 것보다도.”

멈칫한 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샤보다도?”

“응. 나보다도.”

아, 그건 좀...

“약속해. 안 그럼 릴리랑 친구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샤사.”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릴리는 거짓말을 했다.

‘사샤보다 첫번째는 없어.’

그게 설령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속내를 숨긴 릴리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사샤와 화해를 한 덕일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릴리, 자?”

몽롱한 의식 사이로 사샤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들어 왔다.

사샤는 제가 꿈에서 본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건, 아주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샤의 꿈속에서 릴리는 뭐든지 손쉽게 해내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완벽한 영웅이었다.

심지어 아주 멋지게 황자님을 구해내 사랑에 빠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릴리는 묻고 싶었다.

‘사샤는? 사샤는 어떻게 돼?’

그러나 졸음이 목구멍을 꽉 막은 터라 입을 열 수 없었다.

내일 물어봐야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릴리는 사샤의 비밀을 모두 까맣게 잊고 말았다.

“사샤 보고 싶다아아.”

붉은 테이블보가 길게 늘어진 탁상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뜩 풀이 죽어 의기소침해진 목소리.

'어휴, 릴리도 참.'

나는 한숨을 쉬곤 테이블보를 들추며 외쳤다.

“릴리 찾았-”

“사샤!”

“으억!”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릴리의 달려들기 어택에 당해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그래도 뭐라 잔소리를 할 순 없는 건,

“사샤, 찾아줘서 고마워! 사샤라면 날 찾아줄거라고 믿고 있었지!”

“...숨바꼭질은 술래한테 잡히면 네가 지는 거라니까.”

우리 집 하녀에게조차 어른스럽게 구는 릴리가 내게만 어리광 부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두 번, 릴리는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다.

달콤한 것만 먹어도 행복하다는 릴리에게 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알려주고 싶었다.

적어도 나와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그 나이대 평범한 소녀처럼 마음 편히 놀았으면 싶어서.

물론 번번이 실패하는 중이었지만.

‘흠, 숨바꼭질도 별로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 않네.’

열 살은 주로 뭘 하고 놀지?

공주님 놀이 같은 걸 했던가?

“숨바꼭질은 그만하고 이번에 황녀님 놀이 할까?”

예쁜 옷을 잔뜩 입으면서 황궁의 황녀님처럼 떠받들어지면 분명... 재미...

“...릴리, 표정이 왜 그래?”

내 말을 들은 릴리의 표정이 뭐랄까, 무척 비장했다.

그녀는 한참 주변을 경계하더니 아주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거... 혹시 반역 예행 연습 같은 거야?”

뭐? 반역?

“그, 그렇게 무서운 놀이 아냐!”

“황녀님이 되려면 먼저 황족이 돼야, 읍.”

나는 재빨리 릴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얘가 무슨 무시무시한 오해를!

“그, 황녀님 놀이는 됐고. 아주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형 놀이 하면서 놀자, 인형 놀이.”

나는 작년에 선물받은 인형과 인형용 티 세트를 찾아 장난감 상자를 뒤적거렸다.

내 어깨너머로 장난감 상자 안을 살피던 릴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인형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야. 잠깐만, 지금 보여줄게.”

어디에 뒀더라.

분명 작년 겨울에 여기에 처박아놨던 것 같은데

아, 찾았다!

나는 금발이 엉망으로 엉킨 인형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외쳤다.

“이제부터 이 인형이랑 티타임하면서-”

“사샤.”

별안간 릴리가 내 말을 끊으며 어쩐지 짠하다는 눈빛으로 보냈다.

뭐지? 이번에 왜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인형은 차 못 마셔.”

“어... 그, 그렇지. 그럼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거나 머리를 묶어주는...”

내 목소리는 점점 졸아들었다.

릴리의 얼굴에 '그런 게 정말 재밌어?'라는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 열 살은 인형을 가지고 놀기에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으으, 항복이다, 항복!

“그럼 릴리가 하고 싶은 하자. 아님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나.”

그러자 릴리가 정답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학생처럼 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있어! 엄청 엄청 많아!”

어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진작 릴리한테 물어볼걸!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릴리가 엄청 부끄러운 고백을 하듯 뺨을 붉히며 속닥였다.

“있잖아, 나 오늘 처음으로 쪽지 시험 백 점 맞았다?”

그러곤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릴리의 예쁘고 둥근 뒤통수를 눈만 깜박이며 바라보았다.

“...?”

갑자기 왜 그러는 거지?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건가?

‘아, 설마!’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비쭉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릴리의 금발을 마구마구 헝클어주었다.

“정말? 우와, 잘했어! 릴리가 최고야! 릴리는 어쩜 그렇게 똑똑해?”

잠시 후, 머리는 잔뜩 헝클어지고 얼굴은 새빨개진 릴리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다.

아랫입술을 꾹 깨물고 간신히 부끄러움을 참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정답인 모양이다.

우리 릴리, 칭찬받고 싶었구나!

릴리의 칭찬은 하루에 백 번도 더 해줄 수 있다.

“또? 또 내가 뭘 해줬음 좋겠어?”

“사샤가 나랑 간식을 같이 먹어줬음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또 사샤랑 산책도 하고 싶어!”

음, 어쩐지 친구가 아니라 애완견을 다루는 법 같긴 한데.

뭐, 어때. 저렇게 좋아하는걸.

“좋아! 그럼 간식 먹고 산책 가자!”

“응!”

“사샤는 유령 첨탑에서 한 번도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은 적 없어?”

허공에서 달랑달랑 흔들리던 내 양다리가 우뚝 멈췄다.

릴리와 나는 함께 모모에 기승한 채 우뚝 솟은 검은 첨탑을 올려다보는 중이었다.

남자 주인공, 아벨이 유폐된 탑.

그곳은 프랑 가문의 별장과 제법 가까워서 저녁 무렵엔 저택의 안뜰에 첨탑의 그림자가 드리울 정도였다.

사람들은 저 첨탑을 유령 탑이라고 부르곤 했다.

음침한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한밤중에 아이의 비명이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걸 들었다는 목격담이 왕왕 있기 때문이다.

“아니. 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걸. 그리고 내가 알기론 유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 또래의 아픈 아이가 요양을 온거래.”

나는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첨탑에 있는 게 황가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는 건 원작이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첨탑에 유폐된 게 3황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냐면 대외적으론 병약한 3황자가 황궁에서 극진히 간호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아벨은 황궁에 있는 것도, 병약해서 유폐된 것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의 수호룡에 있었다.

<실낙원>의 세계에선 사람이 태어날 때 왼손을 꼭 주먹 쥐고 태어난다.

그 손안에는 조막만 한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뿐인 수호룡의 알이다.

주인과 함께 성장하는 수호룡의 알은 아이가 만 네 살이 되면 부화한다.

가끔 내 경우처럼 용이 몇 년이나 늦잠을 자 부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 반대다.

바로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수호룡이 부화하는 경우.

-저건... 저건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런 경우엔 수호룡과의 동조율이 너무 높아 아이는 사람이라기보단 짐승에 가깝워진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지만, 그 대가로 사고할 수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다.

-난 저런 짐승을 낳은 적 없어.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아벨을 데려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이형의 눈동자를 가진 것을 알게 된 황비는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끝내 자살을 하고 만다.

다행히 아벨의 경우 저명한 용술사가 붙어 기적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위험성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한다.

그것이 바로 남자 주인공이 열여덟 살때까지 성에 유폐되는 이유였다.

“유령이 아니라고?”

릴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첨탑을 올려다보았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유령이 사는 줄 알았는데...”

물론 유령 같은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릴리가 뒤늦게 눈동자를 굴리며 말을 덧붙였다.

아무래도 릴리는 유령이 무서웠나 보다.

이렇게 유령을 무서워하면서도 남주를 구하러 탑도 무너뜨리고.

'우리 릴리는 참 용감하기도 하지.'

그렇게 얼마나 릴리와의 산책을 즐겼을까.

아기 오리처럼 우리의 뒤를 졸졸 쫓아오던 용기사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사샤 아가씨, 릴리아나 아가씨. 혹시라도 콧물이 나오시면 손수건을 챙겨 왔으니 여기에 흥, 하시고-”

“제 체온으로 따듯하게 덥힌 담요도 준비되었습니다!”

...호위 기사를 노룻을 하랬더니 보모가 다 됐어, 아주.

요새 들어선 또 얼마나 유난인지.

전날 사샤 때문에 속이 상해 밤새 엉엉 울고 퉁퉁 부은 얼굴로 용기사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저택을 뒤집어놨다.

-습, 습격... 아가씨가 습격을 당하셨다!

-어쩌다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되신 겁니까!

-어떤 무도한 자가 아가씨를 이렇게 끔찍한 꼴로!

-소, 소가주께서 아시면 우린 죽, 죽은 목숨인데-

...가끔은 저 용기사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기사들인지 의심스럽다.

덩치만 커가지곤 말이야.

오빠한테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덜덜 떨기나 하고.

겁은 또 어찌나 많은지, 바람에 나뭇잎만 굴러가도-

“습격이다!”

그래, 저렇게 외쳤다.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저 난리람.

왕거미라도 나왔나 보지?

“아가씨! 엎드리세요!”

“위험합니다!”

“뭐? 으억!”

눈 깜짝할 새였다.

용기사 둘이 잽싸게 몸을 날려 릴리와 나를 감싸 안고 눈밭을 뒹굴었다.

덕분에 입안에 눈이 왕창 들어갔다.

“퉤, 퉤. 으이씨. 이번엔 또 뭐야!”

왈칵 짜증을 내던 중.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지는게 느껴졌다.

“...?”

멍청히 고개를 꺾어 올려다본 하늘에, 그것이 있었다.

태양의 흑점처럼, 그저 새까맣기만한 흑색의 천룡이.

마치 유성처럼 긴 잔상을 남긴 천룡은 그대로 저택을 가로지르더니.

콰르릉!

검은 번개를 토해냈다.

“으악!”

“아가씨를 보호하라!”

“사샤! 사샤 괜찮아?!”

눈과 비명, 괴성으로 주변은 아비규환이었다.

다들 내 주위를 겹겹히 둘러싸며 날 보호하는 통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으, 잠깐. 잠깐만! 저리 좀 비켜 봐! 릴리, 무사해? 릴리!”

겨우 용기사의 옆구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릴리부터 살폈다.

어느새 내 옆으로 왔는지 그녀는 내 손을 꾹 잡은 채였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나는 뒤늦게 상황을 살폈다.

거칠게 날리는 얼어붙은 눈 결정과 재, 그리고 불꽃의 냄새.

검은 용의 번개가 직격한 곳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간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처럼 숨쉬기가 버거웠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괜, 찮아. 난 괜찮은데...”

나는 여전히 얼떨떨한 얼굴로 저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습격을 당한 건 프랑 가문의 저택이 아니었다.

다만, 유폐된 3황자가 있는 첨탑.

높게 솟아 있던 첨탑의 꼭대기가 반토막이 나 무너져 내려 있었다.

달칵.

나는 다소 요란하게 찻받침 위로 찻잔이 내려놓았다.

차의 따듯한 열기에 차게 언 손이 겨우 온기를 되찾았다.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져서 걱정이에요. 대낮에 테러라니.”

헤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와 릴리의 시중을 들며 말했다.

멸망해 가는 나라의 징조라고 해야 할까.

제국은 연일 안팎으로 소란스러웠다.

부패가 점령한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의 치안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인신매매나 절도와 같은 범죄가 횡횡했다.

그나마 북부는 치안이 제법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됐으니.

“아가씨,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따듯한 코코아 좀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래, 사샤.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거야.”

눈앞에서 벌어진 폭격에 놀랐다고 생각한 걸까.

헤나와 더불어 릴리까지 내 옆에 꼭 달라붙어서 열심히 나를 위로했다.

평소였다면 괜찮다고 웃으며 말해줬을 텐데.

난 말없이 찻잔만 꾹 움켜쥐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원작에서도 당연히 첨탑은 무너진다.

여기, 내옆에 있는 릴리로 인해.

아벨이 열여덟이 되는 해, 그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던 때에.

하지만 그건 8년 후의 일이다.

'내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첨탑은 두 번 무너지는데, 이때의 습격은 원작에 서술되지 않았던 것뿐인가?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마침 창밖으로 보이는 첨탑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단 하나였다.

원작대로라면 나는 릴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벨과 만나 그와 일방적인 친분을 쌓아야 했다.

그런데 내가 원작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언가 뒤틀린 결과, 원작의 없던 습격이 일어난 거라면.

꿀꺽.

'남주, 살아 있겠지?'

입안에서 달게 퍼지던 코코아가 순간 말도 못하게 텁텁하게 느껴졌다.

“카렌 경.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프랑 별장을 총괄하는 집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촉망받는 용기사 카렌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막 날려 보낸 전서구가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고개를 돌렸다.

웬만한 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집사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다.

'소가주님께 또다시 전서구를 보낼 일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으려만.'

카렌은 남몰래 한숨을 쉬곤 고개를 끄덕였다.

“앞장서게.”

갑작스러운 천룡의 습격.

그 목적이 프랑 가문에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프랑 저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칼은커녕 날카로운 날붙이라곤 포크밖에 들어보지 못한 하인들까지 동원해 수상한 자가 있나 저택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게 했다.

벨바르 영주를 다스리는 백작 역시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고, 영지 주변은 빠르게 봉쇄돼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흑색 용의 기승자는커녕, 그 거대한 천룡의 그림자조차도.

걸음을 옮기는 카렌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분명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자였어.’

카렌은 한발 늦게,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제 수호룡을 타고 흑색 용의 뒤를 쫓았다.

상대의 용은 빠르고 우아했으며, 기승자 역시 용을 다루는 데 무척 익숙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에서일 뿐.

용을 수족처럼 부리는 용기사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조금만 더...!’

카렌은 수호룡의 비늘이 곤두설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흑색 천룡을 따라잡았다.

그가 창을 치켜들어 습관처럼 기승자의 왼편을 베려고 했을 때였다.

휙. 상대가 몸을 틀어 창끝을 피했다.

-무슨...!

마치 보지 않아도 카렌이 어디부터 공격할지 알았다는 것처럼.

그러곤 사나운 기색으로 카렌을 돌아보았다.

깊게 눌러쓴 후드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작고 가는 체구 덕에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여자에게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 망할 자식! 너 돌아가서 두고 보자!

카렌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의 공격을 미리 읽은 건 둘째 치고 마치 아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는 뭐란 말인가.

그러나 카렌이 상대를 잡아 심문할 새도 없었다.

영문 모를 소리를 투덜거린 여자가 곧장 용 머리의 방향을 틀어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바다에 몸을 던지듯, 용의 꼬리가 구름에 파묻혔다.

카렌이 뒤늦게 상대를 쫓아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늦은 후였다.

상대는 이미 파도처럼 밀려오는 구름 안에 몸을 숨겨 자취를 감췄었다.

‘내 공격 패턴을 잘 알고, 첨탑에 적의를 가진 여자라.’

카렌이 가만히 범인의 후보를 추렸다.

그러나 도통 짚이는 게 없었다.

문득 그의 눈이 반쯤 무너진 첨탑으로 향했다.

“...첨탑 근처로도 수색할 사람을 보냈나?”

“예?”

앞장서던 집사가 뒤늦게 말의 의미를 깨닫고 대답했다.

“아, 예. 수색할 겸, 첨탑은 직접적인 공격을 당했으니 혹 도울 일은 없나 사람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집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을 맺었다.

“입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제지당했습니다.”

“...그렇겠지.”

더러운 놈들 같으니 하고.

카렌이 짓씹듯이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지민이나 하인들은 저 첨탑이 유령, 혹은 죄인이 사는 곳이라며 쉬쉬했다.

그러나 조금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아는 자들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곳이었다, 저 첨탑은.

첨탑의 꼭대기에 달린 푸른 깃.

그 안에 그려진 거꾸로 선 용의 머리와 가시넝쿨.

용술사 중에서도 황실의 공인을 받은 용술사들이 연구를 하는 탑이었다.

통칭 ‘푸른 가시나무 탑’.

푸른 가시나무 탑의 목표는 단 하나, 부패를 막는 것.

그를 위해서 황실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인도적인 실험까지 불문에 부칠 정도였다.

너무 끔찍해 차마 입에 담는 것조차 혐오스러운 실험들이 저 탑에서는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러니 저 첨탑에 적의를 가진 이들은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여깁니다.”

마침내 집사의 걸음이 멈췄다.

카렌은 상념에서 벗어나 눈앞에 보이는 흔적을 살폈다.

프랑 별장의 뒷문. 그것이 있었다.

“...이건.”

그는 무릎을 굽혀 눈에 난 흔적을 살폈다.

발자국이었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은 별장 뒤편 숲에서부터 홀로 빠져나와 별장의 뒷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숲 뒤편에는 푸른 가시나무 탑이 있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카렌은 번뜩 흑색 용을 다루던 기승자를 떠올렸다.

“저택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보고는 있었나?”

집사가 고개를 저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저택 내에 침입자가 있다.”

카렌이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별장에는 많은 사용인이 숙식했지만, 거대한 저택에는 그보다 더 많은 빈 방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색을 위해 대부분은 인원을 밖으로 빼낸 상태였다.

그리고 침입자는 바로 그때를 노린 것이다.

“샅샅이 수색하도록. 단, 사샤 아가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움직여 주게.”

“사샤 아가씨요?”

“그래, 혹여 아가씨께서 겁이라도 먹어 눈물이라도 보이신다면.”

꿀꺽. 카렌이 마른침을 삼켰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일지 잘 알지?

소가주가 웃는 낯으로 덧붙인 경고가 떠올랐다.

그는 괜히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맺었다.

“우리 모두 어깨 위가... 아주 가벼워지겠지.”

왜냐하면 목이 떨어져 나갈 테니.

“뭐?”

“릴리아나 아가씨 대신 오늘은 저희가 아가씨 잠드시기 전까지 놀아드릴게요.”

나는 눈을 깜박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날 감시하겠단 소리지, 저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헤나와 기사들을 올려다보았다.

헤나가 내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만 뻘뻘 흘렸다.

테러가 벌어진 직후, 슈테인 가문에선 급히 릴리를 호위해 데려갈 기사들을 보내왔다.

나는 슈테인 가문의 기사들이 릴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야 좀 안심이 되었다.

-작은 주인님, 돌아가실 땐 모모 말고 다른 걸 타시면 어떠십니까.

-다른 거, 뭐?

-제가 목마를 태워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좀. 승차감도 별로고, 엄청 느릴 것 같아.

-...예.

키가 훌쩍 큰 어린 주인을 목마 태워주지 못해 시무룩해하는 기사라니.

적어도 릴리가 맘 기댈 곳도 없이 홀로 고립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무사히 릴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프랑 저택은 다시 일상을 되찾는 듯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가씨,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테러범도 곧 잡히겠죠!

그렇게 말해놓곤, 헤나는 어디서 기사 두어 명을 데려와 내 뒤를 졸졸 쫓기 시작한 것이다.

밥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게다가 갑자기 사용인들까지 묘하게 분주해졌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저택을 대청소하겠다며 모든 방을 뒤집어놓다니.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다.

“헤나,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럼, 그럼요. 제가, 어떻게 아가씨를...소, 속이, 속이겠어요.”

헤나는 거짓말을 못 해도 너무 못해서 큰일이다.

나는 결국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그럼 숨바꼭질하면서 놀래.”

“네? 하지만 저택을 돌아다니면 안, 읍.”

헤나가 급하게 어벙하게 생긴 기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저택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잠시만요, 아가씨. 저희끼리 금방 술래부터 정할게요.”

헤나는 기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작당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안전이 우선...”

“아가씨 방은... 몰래 확인이 끝...”

“...입구만 지키면...”

곧 회의가 끝난다.

헤나가 대표로 나서 나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저택 전체를 놀이 구역으로 삼으면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아가씨 방 안에서만 노는 게 어떨까요?”

기사들과 한통속이 된 헤나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술래 내가 정해도 돼?”

“물론이죠, 아가씨!”

“술래는 정해진 숫자를 다 셀 때까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문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말했다.

“그럼 셋 모두 술래야. 모두 만까지 세고 들어오도록.”

“...!”

“잠깐-!

“아가씨, 그게 무슨!”

쾅!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무시하고 나는 문을 닫았다.

“어휴. 이제야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만까지 세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터였다.

나는 그사이 최대한 원작의 내용을 되짚어가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작정이었다.

필기구를 찾는 내 발에 장난감 블록이 채인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블록을 주워들고 무심코 내 방을 한번 휘둘러보았다.

“...?”

뭔가 이상했다.

“왜 장난감이 다 나와 있지?”

점심쯤에 릴리에게 인형을 보여주겠다고 장난감 상자를 뒤지긴 했다.

하지만 장난감을 모두 꺼내서 이렇게 방바닥에 마구 흩트려놓은 적은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바빠 보여? 뭘 찾고 있대?

-아, 아뇨, 찾긴요. 그냥... 대, 대청소! 대청소나 해볼까 하고요.

떼구루루.

내 손에서 블록이 굴러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굳게 닫힌 장난감 상자로 향했다.

크긴 하지만, 어른이 몸이 숨길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장난감 상자로 다가갔다.

꿀꺽.

장난감 상자 손잡이를 쥔 조금 떨렸다.

곧 상자의 뚜껑을 밀어 열자마자-

우당탕!

“...읍!”

뭔가가 나를 덮치며 뒤로 떠밀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상대가 내 입을 틀어막고 온몸으로 날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뒤통수를 바닥에 찧은 충격으로 골이 울렸다.

나는 장난감 상자에서 튀어나온 것을 멍청히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내 또래의 소년이었다.

까마귀 같은 흑발.

새싹 같은 녹안은 어둡게 가라앉아 유리구슬처럼 공허하고 무기질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인형 같은 무표정.

소년은 내 장난감 상자에 담겼던 인형 중에서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섬세했다.

현재의 상황도 잊고 넋을 놓고 볼 만큼.

“...”

소년은 말 없는 무표정으로 나를 위협했다.

나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잡히는 대로 손에 쥐었다.

그리고 무작정 상대의 머리를 향해 후려쳤다.

헤나와 별장 식구들이 내게 숨기며 찾아 나서던 것.

그게 바로 내 눈앞의 이 침입자라는 걸 단번에 깨달았다.

나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잡히는 대로 손에 쥐었다.

그리고 무작정 상대를 머리를 향해 후려쳤다.

뾱!

“...?”

...뭐야, 이 우스꽝스러운 타격음은?

예감이 영 좋지 않았다. 데구루루 눈동자를 굴렸다.

내가 손에 쥔 건... 솜을 가득 채운 토끼 인형이었다.

‘하필이면!’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형의 귀를 붙잡고 마구 적을 후려쳤다.

물론 고함지르는 것도 잊지 않고.

“으읍! 비으읍!”

뾱! 뾱뾱!

“비크읍! 으븝!”

뾱뾱뾱!

타격음이라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귀여워 서글펐다.

그런데 솜방망이라도 효과가 있었던 걸까.

뾱!

별안간 상대가 줄 끊어진 인형처럼 내 위로 무너졌다.

“으헉, 무거!”

졸지에 소년의 몸 아래에 납작 깔린 내가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끄윽, 저리, 비키지, 못해!”

나는 안간힘을 쓰며 마침내 상대의 밑에서 엉금엉금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걸음으로 기어 문으로 달려갔다.

“허억, 허억.”

손잡이에 매달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려던 때였다.

묘하게 주변이 조용했다.

나는 호흡을 고르며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소년은 엎어진 채 움직임이 없었다.

생각보다 약골이었는지 아무래도 인형에 얻어맞고 그대로 기절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엎어진 모습이 꼭... 피살당한 피해자처럼 불길해 보였다.

“...”

죽, 죽은 건 아니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덜컥 겁이 나 슬금슬금 다가가 발끝으로 침입자를 쿡쿡 찔러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이제 보니 소년의 안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손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꿀꺽.

‘설마...’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상대의 코 가까이에 검지를 가져갔다.

툭. 손안에서 인형이 떨어졌다.

손끝에서,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 어떡해. 지, 진짜 죽은 건 아니겠지?”

호흡이 너무 얕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차마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주변의 가구를 살폈다.

“진정하자. 일단, 이걸 어디에 숨겨야...”

아니, 정신 차려, 사샤! 지금 무슨 대놓고 범죄자 같은 생각을!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이다가 방문을 빼꼼 열었다.

헤나는 기사들과 함께 쪼르르 줄지어 서서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숫자를 외고 있었다.

“헤, 헤나아...”

“...567, 568, 어머, 아가씨. 아직 천도 세지 못했는데. 기다리기 지루하기면 오천까지만 셀까요?”

나는 마른침을 삼키곤 손을 까닥까닥해 헤나를 가까이 불렀다.

지금 믿을 건 헤나밖에 없었다.

“숨바꼭질은 그만할래. 그보다 헤나한테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헤나가 웃는 얼굴로 다가와 기꺼이 허리를 숙여주었다.

나는 잠깐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헤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기, 헤나, 있잖아.”

“네, 아가씨.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헤나가 덜 충격받을까.

그래, 확실하게(?) 사망 확인을 한 건 아니니까 희망을 걸고 상황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자.

헤나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나는 할 말을 고르고 고른 끝에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

아차. 이게 아닌데.

서론부터 꺼내려던 게 결론부터 나와버렸다.

헤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테러가 벌어진 지 일주일.

벨바르 영지의 영주는 물론 피난 온 귀족들까지 사병을 풀어 수색에 나섰지만 테러범은 잡히지 않았다.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그러나 프랑 가문의 문제는 테러범뿐이 아니었다.

“카렌 경.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헤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순찰을 도는 카렌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헤나 양, 아가씨께선 오늘도 두문불출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카렌의 눈 밑이 거뭇거뭇했다.

그럴 만도 했다.

저택에 침입자가 든 것은 확실한데 범인은커녕 목격자도 없으니, 별장의 경비를 책임지는 입장에선 어지간히 속이 탈 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헤나는 양심이 아파 속이 쓰릴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카렌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침입자는 벌써 일주일 째 사샤의 방에 숨어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 당시 일을 생각만 해도 헤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허겁지겁 방에 들어가 살펴보니, 다행히 사샤의 말대로 죽은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았지만.

-저체온증이랑 옅은 동상이에요. 기력도 많이 쇠한 것 같고요. 우선 몸을 따듯하게 해야 해요.

헤나를 도와 사샤가 부지런히 움직였다.

벽난로에 한껏 불을 지피고, 차게 언 손과 팔을 손난로로 녹였다.

겨우 한차례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헤나는 모든 걸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카렌이라고 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설마 침입자가 그렇게 어린 데다가 아가씨의 장난감 상자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나 양. 헤나 양?”

“예? 아, 죄송해요. 요새 잠을 통 못 자서.”

정신을 차린 헤나가 말을 이었다.

“사샤 아가씨는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게, 저,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주우셨다던 고양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나 보군요.”

뜨끔. 카렌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헤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헤나. 한동안 이 아이에 대해선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

-네? 하지만...

-부탁이야. 쟤가 정신을 차리고 며칠만 숨겨주면 돼.

소년이 첨탑에서 온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샤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헤나의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곤 지극정성으로 소년을 돌보기 시작했다.

주인 아가씨가 방에 콕 박혀 도통 얼굴을 비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때마다 헤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를... 돌보시느라.

-아가씨께서 일주일 전에 고양이를 주우셨거든요.

덕분에 매일 거짓말을 하느라 진을 다 빠졌다.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헤나가 사샤의 방문을 연 순간이었다.

“악! 페페 이 못된 놈! 너 일로 안 와?”

사샤의 비명이 거위 깃털과 함께 나풀나풀 휘날렸다.

“이게 무슨...”

방은 폭격을 맞은 듯 엉망이었다.

베개들은 속이 터져 홀쭉했고, 방바닥에 온갖 물건들이 굴러다녔다. 찢어진 커튼과 반쯤 뒤집힌 카펫까지.

헤나가 아찔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았다.

“헤나! 마침 잘 왔어. 페페 좀 잡아봐!”

헤나의 시선이 사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위로, 위로 올라갔다.

“저긴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건가요?”

일주일 전과 달리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소년가 얼굴만 빼쭉 내민 채 사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높은 장식장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커튼 타고 올라가더니 장식장 위로 점프했어!”

커튼을... 뭐 어쨌다고요?

아무래도 소년은 좀 심하게 건강을 되찾은 모양이었다.

사샤가 의자 위에서 암만 깡충거려도 높다란 장식장 위에 닿기란 요원해 보였다.

“후, 미끼 작전을 바꿔야겠어. 헤나, 내가 말한 건 가져왔어?”

사샤의 보라색 눈동자가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네,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싸우시는 건가요?”

헤나가 주섬주섬 챙겨온 간식 바구니를 넘겨주었다.

사샤는 장식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티 테이블에 보기 좋게 디저트들을 늘여놓으며 토로했다.

“쟤가 날 약 올렸단 말야.”

말하려니 억울했는지 사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헤나는 사샤의 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

헤나가 보기에 페페는 아주 얌전한 소년이었다. 조금 마음이 쓰일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처음 며칠 동안, 페페는 모든 상황과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인형처럼 눈만 깜박거리다가 헤나의 손이 닿을 때만 움찔거릴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사샤가 임시로 붙여준 ‘페페’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망가진 인형 같았던 아이가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건 사샤와 함께 있을 때였다.

-사샤 아가씨. 페페가 아가씨가 안 계시면 밥을 도통 먹질 않아서...

-페페는 사샤 아가씨가 곁에 있을 때만 맘 편히 잠을 자네요.

헤나가 보기에 페페는 놀라울 만큼 사샤를 잘 따랐다.

그런데 그런 페페가 약을 올렸다고?

헤나가 영 못믿겠다는 얼굴을 했다.

사샤가 당장 부루퉁하게 입술을 삐죽였다.

“자기가 먼저 날 쳐다봐놓곤, 내가 말을 거니까 귀찮다는 표정으로 날 무시하는 거 있지?”

사샤가 큼지막한 마들렌을 살랑살랑 흔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난 도통 쟤 마음을 모르겠어. 어쩜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아까는 자기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으면서, 내가 좀 손댔다고 나를 막 할퀴었다니까!”

난 그냥 머리카락에 깃털을 떼어내 주려고 한 거란 말야.

“그래서, 도망가는 페페를 잡으려다 방이 이 꼴이 된 건가요?”

“그래! 약골인 줄 알았는데, 도망 하나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잘 치는지.”

그때, 헤나의 시야에 페페가 장식장 위에서 뚝, 떨어져 내리는 게 보였다.

소리도 없이 착지한 페페가 사샤의 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들렌을 보며 살금살금 다가오기 시작했다.

역시나, 오늘도 미끼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페페를 다루는 데 도가 튼 사샤였다.

사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무심한 표정으로 마들렌을 제 무릎 위에 얹어 덫을 만들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마침내 사샤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고,

“잡았다, 요놈!”

사샤가 와락 페페를 붙잡으려는 순간.

페페가 사샤 옆 바닥에 벌러덩 주저앉아 슬쩍 그녀의 다리에 몸을 붙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뺨을 한번 비비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빠끔히 올려다 보았다.

“으으... 너어... 너는 진짜... 그런 외모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먹어!”

결국 사샤는 페페의 입에 큼지막한 마들렌을 물려주었다.

그걸 보며 헤나는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샤가 페페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어쩌면 페페가 사샤를 잘 다루는 걸 수도.

“어휴, 진짜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네.”

나는 안락의자 널브러져 벽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페페를 바라보았다.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누구는 심란해서 밤잠을 설치는데, 너는 지금 잠이 오냐, 잠이!

투덜거리면서 페페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내가 몰래 페페를 방 안에 두고 지켜본 건, 그를 첨탑으로 돌려보내지기 전에 은밀히 묻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

바로 3황자 아벨,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였다.

얼마 전에 벌어진 테러에 관해서는 그저 본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럼에도 내심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찰나였다.

왜냐하면 원작대로라면 지금쯤 내가 남주를 만나 친분을 쌓아야 했으니까.

‘뭐, 사실 친분이라기보다는 제 손안에서 굴리는 장난감 취급을 한 거였지만.’

어쨌든 내가 남주를 만나지 않은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기가 손쉬울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때마침 첨탑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페페가 정신을 차리면 첨탑에 관해 은근슬쩍 물어볼 속셈이었는데.

‘설마 말을 못 할 줄이야.’

게다가 페페에게서 좀 찜찜한 구석을 발견해 예상보다 오래 내 방에 숨겨주게 되었다.

페페의 몸엔 상처 하나 없고 영양상태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겁에 질렸다.

앓는 소리를 내며 악몽을 꾸기에 헐레벌떡 달려가 그를 깨운 것도 벌써 수 번이었다.

-페페, 네가 여기 있다고 첨탑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루는 혹시 첨탑에서 페페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물었다.

페페는 곧장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고도 내가 첨탑에 연락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한동안 날 졸졸 쫓아다니며 감시까지 했다.

일주일 동안 내 방에서만 지냈으니 답답할 만도 하건만.

페페는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몹시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어디 갇혀 있었던 것처럼.

나는 불현듯 유년 시절의 남주가 페페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분명 3황자는 아니야.’

나는 벽난로의 불빛에 비쳐 주황빛에 물든 페페의 이목구비를 몇 번이나 살폈다.

새카만 흑발에 날개 꺾인 새의 깃처럼 연약해 보이는 녹안.

반면 3황자는 백발에 한쪽 눈이 호박색인 홍채이색증을 앓고 있었다.

어디로 보나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외형과는 달랐다.

그러나 엑스트라라고 하기에는...

“암만 봐도 엑스트라용 외모가 아니란 말이지.”

페페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며 그의 부드러운 흑발을 살살 쓰다듬었다.

기분이 좋은지 페페가 잠결에 만족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나는 페페를 발견했을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 떠올렸다.

성인 여성용 장화와 담비 털 망토.

소재가 고급스러워 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은, 아마 누군가 페페에게 입혀 준 것일 테다.

나는 그 누군가가 페페에게 맞지도 않는 보온용 옷을 입혀준 의도에 대해 고민했다.

첨탑에서 우리 저택까지 이어진 발자국은 단 하나.

그가 망토 안에 입고 있던 건 얇은 실내복뿐이었다.

비약일지도 모르나, 탑이 공격당했을 때 누군가 이 애를 급하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페페에겐 급히 탑을 빠져나올 만한 사정,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첨탑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대로 페페를 첨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나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

한동안 페페에게 신경을 쓰느라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바로 편지 답장 쓰기!

그동안 내 앞으로 편지가 어찌나 많이 왔는지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의 다 오빠와 릴리에게서 온 거긴 하지만.

특히 릴리에게서 샤렌 못지 않게 편지가 많이 왔다.

테러범 때문에 한동안 외출이 어려워진 탓에 우리는 편지로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고 있었다.

덕분에 손이 잉크 투성이가 되도록 편지를 쓰고 또 쓰는 중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누구에게냐고?

‘당연히 페페지.’

페페는 내가 편지를 쓰는 동안 의자를 내 옆으로 끌고 와 앉아 깃펜이 움직이는 걸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페페! 장난 좀 치지 말라니까!”

내가 방심한 틈을 노려 꼭 한 번씩 깃펜 끝을 툭툭 쳐대는 것이다!

펜이 종이 위에서 쭉 미끄러지며 잉크가 번졌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너 자꾸 이러면... 이러면...”

목에 깔때기를 씌워 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지 못한 건 날 물끄러미 바라보는 페페의 얼굴이... 너무 무구해 보여서.

“하아...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냐. 다 네 앞에서 깃펜을 흔든 내 죄지.”

나는 결국 깃펜을 내려놓고 샤렌에게 온 편지를 대충 훑어보았다.

오빠가 보낸 편지는 평소와 같았다.

보고 싶다, 잘 지내냐.

오늘은 무얼 하면 놀았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밟혔다.

“이상하게 편지가 도착하는 날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

별장에서 수도까지는 마차를 타고 보름.

가장 빠른 전서구를 이용해도 엿새는 걸린다.

그래서 보통 샤렌의 편지는 6일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시차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사흘, 이틀, 하루, 심지어 이건...

마치 한 시간 전에 보낸 것 같잖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장 최근에 도착한 편지를 살필 때였다.

“...샤는 어디 있지?”

“...?”

오빠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었다.

“...소가주님! ...연라고 없이!”

“세상에, 우선...!”

아니.

“...씨께 알려! ...오셨다고!”

환청이 아니었다. 이건-

쾅!

별안간 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새카만 모피 코트를 입은 진짜 샤렌이 나타났다.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다.

코트에 주렁주렁 달린 눈송이와 얼어붙은 분홍색 머리칼.

뺨은 붉게 터 불그스름했고, 입술은 파리했다.

“오빠...?”

나는 너무 올라 멍청히 중얼거렸다.

샤렌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날 번쩍 안아 들고 꼭 껴안았다.

숨통이 콱 조일 지경으로 날 껴안는 통에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다.

“오빠, 숨, 숨 막, 으억!”

암만 바둥거려 보려고 샤렌은 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어깨에 이마까지 묻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심장이 그대로 터져 버리는 줄 알았어.”

한동안 날 꼭 안던 샤렌이 조심스럽게 날 놓아주고 몸을 낮추었다.

나는 그제야 오빠를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도 모르게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오빤,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보는 내가 덜컥 심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다.

샤렌이 창백한 낯으로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냐. 일은 무슨. 오히려 큰일은 사샤 네가 치렀지. 북부에서 테러가 있었다면서.”

아, 설마 샤렌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달려온 거구나.

평소였다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화부터 냈을 텐데.

문득 샤렌의 미래를 떠올린 나는 입을 다물고 오빠을 조용히 껴안아 주었다.

내 죽음이 그에게 남길 상처를 잘 알아서.

그저 그 넓은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와주었잖아.”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샤렌이었지만, 마차로 보름이 걸리는 거리를 나흘 만에 주파한 대가는 혹독했다.

내가 무사한 걸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오빠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가서 한숨 자고 와.”

“아냐, 사샤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샤렌은 설탕을 잔뜩 넣은 홍차로 몸을 녹이며 비몽사몽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오빠와 마주 앉아 혹시라도 오빠가 홍차를 쏟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일단 그러니까, 그래. 나랑 같이 수도로 돌아가자.”

갑작스럽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말은 아니었다.

샤렌은 홍차에 넣어야 할 레몬 조각을 통째에 입에 물어 억지로 잠을 깨우며 말을 이었다.

“테러범이 잡히지 않는 이상, 이제 북부도 안전하다곤 할 수 없어. 차라리 수도 저택에 아티펙트를 설치해서 부패의 재를 막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물끄러미 샤렌을 바라보았다.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걸까.

우리 가문이 아무리 재력 넘친다지만, 아티펙트는 황실에서 주도적으로 제작, 납품하는 아주 값비싼 마법 용품이다.

어떤 마법이 담겼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티펙트 하나에 작은 집값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저택 주변에 모조리 설치겠다고?

‘재력이 된다고 해도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아빠가 보기엔 그건 터무니없을 만큼 ‘비효율’적인 일이니까.

게다가 잘은 몰라도 우리 가문은 황실과 그다지 친하지 않다.

아티펙트를 사려면 필연적으로 황실과 엮이게 될 텐데, 남주를 피해야 하는 내 입장에선 그리 내키는 선택지도 아니었다.

“오빠. 입 좀 벌려 봐.”

나는 손을 까닥해 오빠를 가까이 오게 했다.

군소리 없이 입을 벌린 채 내게 얼굴을 가져다 대는 샤렌의 입에 레몬을 왕창 처넣어주었다.

신 것을 잘 못 먹는 샤렌이 당장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설 정도로 몸부림쳤다.

“으웁!”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사샤아...”

“내가 수도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나 되지만, 그중에서 딱 하나만 말할게.”

이 기회에 못을 박는 게 좋겠지.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황실 사람들이랑 얽히는 거 결사반대야. 특히 머리카락이 백발이다? 완전 아웃. 황가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오빠?”

어쩐지 내 말을 듣는 샤렌의 표정이 좀 이상했다.

오빤 멍한 얼굴로 눈을 깜박이고 비비다가, 미간을 슬슬 문질렀다.

“...잠깐만. 지금 좀 이상한 게 보여서.”

많이 피곤한가?

나는 슬쩍 샤렌이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책상 아래.

몸을 쪼그리고 앉은 페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샤렌을 보고 있었다.

비로소 자기가 보는 게 환각이 아니란 건 깨달은 샤렌이 벌떡 일어나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이 왜 여길-”

나도 덩달아 벌떡 일어나 쪼르르 페페 앞으로 달려갔다.

이 바보! 멍청이! 어떻게 페페를 까맣게 잊을 수가 있지!

“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얜...”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친구?

새로 들인 하인?

별장 고용인의 아이라고 말하면 무사히 넘길 수 있으려나?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는데, 페페가 책상 아래에서 내 소매를 슬쩍 붙잡아 당겼다.

그 순간.

“주, 주웠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외쳤다.

“...뭐?”

에라 모르겠다!

“집도 없고,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키워보려고 하거든?”

“...”

“아, 안 될까?”

나는 아직 내 소매를 잡고 있는 페페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내게 바싹 붙어 샤렌을 경계하는 페페를 머리를 토닥이며 해맑게 웃었다.

“봐봐. 얘도 날 좋아해. 그치, 페페?”

물론 페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를 악문 채 속삭이는 것도 있지 않고.

자, 페페. 어서 눈치 챙기자.

‘으서, 으쓰라그.(웃어, 웃으라고.)’

그러자 보기 드물게 멍청한 표정으로 나와 샤렌을 번갈아 보던 샤렌이 조용히 읊조렸다.

“...있지?”

“응?”

“카렌 경은 어디 있니, 사샤?”

오싹.

“...?”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소름이 돋지?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해사하게 웃는 샤렌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샤렌은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열 오른 눈가를 팔로 가렸다.

벽난로 불빛에 비친 그의 미려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졌다.

“카렌.”

한숨처럼 내뱉는 낮은 목소리에 짙은 노곤함이 어렸다.

부복해 있던 카렌이 비로소 자세를 바로 하며 답했다.

“하명하십시오.”

“...정말 몰랐나?”

무엇을 묻는지 너무나도 명확했다.

-카렌은 몰랐어.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단 말야!

사샤는 그렇게 말했고, 샤렌은 동생이 작정하고 숨긴 걸 왜 알지 못 했냐고 화를 내는 불합리한 상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지식한 카렌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택에 숨어든 침입자의 존재.

침입자가 성인 여성이라 속단해 수색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게 패착이었다.

카렌은 뒤늦게 사샤의 방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사샤가 숨기고 싶어 하는 눈치라 섣불리 침입자를 배제할 수 없었다.

-사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 설령 그게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해도.

그 또한 제 주인의 명이었으니까.

샤렌이 손을 내리고 어둡게 가라앉은 자색 눈동자로 카렌을 응시했다.

“내가, 더러운 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랬잖아.”

사샤 앞에서는 항상 웃기만 하던 얼굴에 날 선 표정이 어리자 순식간에 인상이 변했다.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샤렌은 팔걸이에 팔을 얹고 손에 턱을 얹고 무감정한 시선으로 고개 숙인 카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샤렌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사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선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었으니까.

게다가 카렌이 ‘그분’의 정체를 눈치챘을 리도 없고.

‘그저 가시나무 첨탑에서 도망친 어린 실험체라고 생각했겠지.’

샤렌은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황실의 허가는 받았으나, 생체 실험을 하는 건 떳떳한 일이 아닌지라 첨탑은 도망친 실험체의 뒤를 쫓진 않았다.

탈출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면, 애초에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실험 쥐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카렌의 판단대로 프랑 저택에 기어들어 온 소년은 어리고 자그마해서 사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아이가 ‘단순한’ 실험체에 불과했더라면.

“이 일을 당장 수습해야 해. 자칫 잘못했다간 황족 납치 사건으로 얽힐지도 몰라.”

짧은 말 몇 마디.

그러나 카렌은 단숨에 모든 정황을 파악했다.

첨탑엔 너무 이르게 부화한 수호룡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황자가 치료를 위해 유폐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고위 귀족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지만, 샤렌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카렌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샤렌의 말뜻은, 그 소년이 황족이라는...

“하지만.”

카렌은 드물게 제 주인을 향해 의문을 표했다.

“그 소년은, 아니, 황자님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성을 잃어 짐승처럼 흉포해진 상태라고 보기엔 도저히-.”

말을 잇던 카렌이 표정이 점차 일그러졌다.

그의 얼굴에 차마 숨기지 못한 동요가 어렸다.

“수호룡과의 동화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끌어 올리는 게... 목적이었군요.”

샤렌은 입을 열지 않았다.

벽난로의 불티 튀는 소리가 그의 답을 대신했다.

수호용과의 동조율이 높을수록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힘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법.

일정치 이상 수호룡과 동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신체의 변형과 반토막 나는 수명의 수명은 물론, 인간의 이성을 잃고 흉포해져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인외의 힘을 지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 첨탑이 황실의 지지를 얻고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다.

샤렌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목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어두운 와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필체로 글을 적어 나갔다.

“황제는... 그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자’.

불충한 표현이었지만, 샤렌은 그조차도 황제를 지칭하는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이라 생각했다.

황제는, 아주 끔찍한 인간이었다.

자신의 친아들마저 실험체로 삼을 정도로.

“이 일이 알려지면 황제에게는 아주 좋은 꼬투리가 되겠지. 황실의 압박은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부턴가 황제는 강한 수호룡을 소유한 가문의 영애들을 모조리 첩으로 들였다.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자식의 수호룡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짐승의 교배라도 시키듯이.

즉각 귀족들이 반발하고 일어나 더 이상 황제는 무분별하게 첩을 들일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야욕은 이제 자신의 자식들과 어린 귀족 영애들을 접붙이는 일로 향했다.

그리고 황제는.

“나는 그 미치광이 핏줄에 우리 가문이, 사샤가 얽히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대대로 우수한 천룡을 수호룡으로 삼는 프랑 가문에 대한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라면, 프랑 공작이라면 이해득실을 셈해 샤샤를 황실에 정략결혼으로 팔아 버릴 수도 있었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황자를 내보내야 해. 단, 사샤가 모르게 조용히.”

샤렌이 급히 휘갈긴 편지의 봉투를 붉은 밀랍을 녹여 봉했다.

아버지에게 인계받은 인장 반지로 밀랍에 가문의 인장까지 찍은 그가 편지를 내밀며 말을 맺었다.

“호랑이를 쫓아낼 수 없다면, 사냥꾼을 집으로 초대할 수밖에”

카렌은 즉시 편지를 건네받았다.

첨탑의 용술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다.

초대장을 보내면, 3황자에 관한 일은 첨탑에서 찾아온 용술사가 알아서 처리하리라.

그러나 카렌은 그대로 돌아 나오는 대신, 잠시 주저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미처 삼키지 못한 말을 뱉었다.

“소가주님. 괜찮으시겠습니다.”

카렌은 편지를 건네던 샤렌의 손이 일순간 떨렸던 것을 보았다.

말하진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 황자가 첨탑으로 돌아간다면 겪게 될 끔찍한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샤렌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을 뿐이었다.

“뭐가 말이지?”

“...아닙니다.”

서릿발 같은 음성에 카렌은 등을 돌렸다.

검을 휘두르는 것보다, 꽃을 꺾어 가족에게 선물하는 것을 더 좋아하던 그 시절의 주인을, 카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꽃대를 쥐는 대신 피 묻은 펜대를 쥔 주인의 마음 역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빌어먹을.”

카렌이 나가자마자 샤렌이 욕설을 내뱉으며 마른세수를 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샤가 더러운 것을 눈에 담고 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진창 따윈 딛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손을 더럽힐 셈이었다.

갑자기 겨울 별장을 찾아온 샤렌에게 페페를 들킨 후.

나는 이참에 페페가 저택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음 싶었다.

그래서 우선 내 시중을 들어주는 하녀들에게 페페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어딨긴, 테이블 간식... 어라?”

어디 갔지?

방금 까지만 해도 카우치에 늘어져서 새 간식을 시식하고 있었는데?

잠깐 시선을 판 사이에 한 입 파먹은 쿠기만 덩그라니 남고, 페페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결국 하녀는 페페의 머리카락 한 올 보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가봐야 했다.

하녀가 가고 나서야 페페가 드레스룸의 옷장 안에서 기어 나와 다시 간식을 열심히 시식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심지어 숨는 장소도 매번 바뀌었다-나는 결국 페페를 저택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길 포기했다.

'낯을 가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나마 헤나에게는 경계를 많이 푼 거였다.

적어도 얼굴은 보여주니까.

덕분에 여태처럼 방 안에서만 지내는 페페의 하루는 무척 단조롭게 흘러갔다.

“사샤 아가씨, 티타임 시간이에요! 여기, 페페의 간식도 준비했어요.”

먹고.

“사샤 아가씨, 페페의 전용 침구를 아예 아가씨 방으로 들일까요?”

자고.

“페페 아가씨, 사샤의... 아차, 이게 아니지. 사샤 아가씨, 페페가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숨은 쉬는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또 자고.

계속... 자고.

헤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불을 번데기처럼 둘둘 몸에 말고 있는 페페를 바라보았다.

어제저녁부터 내내 저 상태였다.

죽은 건 아닌지, 헤나가 걱정할 정도로 단 한 번 뒤척이지도 않았다.

결국 내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몸에 곰팡이 피겠어!”

펄럭.

이불 끄트머리를 확 잡아당기자 페페가 공벌레처럼 데굴데굴 굴러 나왔다.

잠시 후 비몽사몽한 눈으로 하품을 쩍, 한 페페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해석하자면,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하고 묻는 거였다.

뻔뻔함이 아주 황족 저리 가라였다.

무슨 더부살이를 저렇게 속 편하게 하지?

아니, 물론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헤나!”

헤나가 예상했다는 듯 척척 걸어와 내게 깨끗한 옷 한 벌을 건네주었다.

페페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너무 무서워하는 탓에 그의 수발을 드는 건 내 차지였다.

“페페 팔. 만세 해야지. 단추부터 다 풀고. 그렇, 아니, 아니, 아니! 바, 바지는 벗지 말고!”

재빨리 눈을 가리고 옷을 던져줬다.

그리고 생각했다.

‘얘는 대체 정체가 뭐지?’

단 한 번도 프랑 저택을 벗어나 첨탑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사람을 유독 두려워하는 탓에 혹시 학대를 당한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던 차였다.

그런데 가만 보면 수발받는 게 너무 익숙해 보였고.

간식도 비싸고 만들기 까다로운 것만 기가 막히게 골라 먹는 고급 입맛이었다.

‘이것 봐. 내가 옷을 입혀 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잖아.’

진짜 얘는 정체가 뭘까.

“인물이 좋아서 그런지, 프릴이랑 리본도 잘 어울리네.”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페페의 나비 리본을 꽉 묶어주었다.

페페는 내가 예전에 입던 승마복을 입고 있었다.

승마복이라고 해도 아동복이라 기능성보다는 멋을 살린 탓에 아기자기한 장식이 많이 달려 있었는데, 페페에게 썩 어울렸다.

아니, 사실 너무 잘 어울려서 명망 높은 귀족가의 도련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지경이었다.

역시, 뭐든 잘생기고 볼 일이라니까.

잠시 후, 나 역시 승마복을 챙겨입고, 페페와 나란히 용사로 향했다.

승마는 요새 생긴 내 취미였다.

내 수호용이 아직 부화를 안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훈련시킨 야생 지룡를 다뤄야 했다.

용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요새 내가 길들이고 있는 지룡을 페페에게 보여주었다.

“페페, 인사해. 이 아이 이름은 베베야.”

내 말에 페페의 표정이 삐딱하게 변했다.

베베와 페페.

이름 짓는 내 센스를 심각하게 나무라는 얼굴이었다.

뭐. 왜. 뭐.

베베가 어때서.

페페가 어때서!

“이름이 뭔가 중요해. 누구랑 다르게 우리 베베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페페와 함께 베베를 타고 산책하겠다는 내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순한 편은 아니었지만 훈련이 잘되어 있어 말을 잘 듣던 베베가 어쩐지 페페 앞에서는 유난히 뻣뻣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자꾸 뒷걸음질 치고.

구석에 머리를 가져가 박고.

끄앙, 끄앙 울어댔다.

마치 페페가 무서워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설마 진짜 페페가 무서워서 그럴 리는 없고.

‘혹시 이름이 비슷하다고 심술부리나?’

결국 도통 말을 듣지 않은 터라 기승은 아예 포기하고 베베를 달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다.

페페는 페페 나름대로 용사 안의 용들과 눈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용들과 한 마리씩 눈을 마주치고 기싸움을 했는데, 놀랍게도 번번히 용들이 먼저 고개를 푹 숙였다.

덕분에 목표로 했던 기승은 하지 못했지만 페페는 한껏 의기양양해졌다.

사람 상대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용을 상대로 이기는 걸 보니 뭐랄까.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모르겠다.

페페가 우리 집에 온 지 어느덧 이주 째.

그 말은 샤렌이 북부로 올라와 머문 지 어느덧 일주일이나 흘렀다는 얘기였다.

다행히 샤렌은 딱히 페페를 내쫓으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쭉 지내도 된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지만.’

이주가 지났는데도 페페는 여전히 사람들과 낯을 가렸고, 내 옆에만 붙어 있으려 했으며, 그러면서도 날 은근히 무시해 내 속을 뒤집어 놨다.

그래도 그런대로 저택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페페의 처우를 생각하고, 틈틈이 첨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어디보자, 푸른 가시나무라고 했지.’

첨탑에 달린 깃을 보고 ‘푸른 가시나무’에 대해 어찌어찌 알아냈다.

푸른 가시나무는 용의 마력을 빌려 마법을 사용하는, 일명 용술사들이 소속된 단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좀 더 깊숙이 파고들기 위해, 저택 내 서고에서 용술사에 관한 서적을 몇 권 빌려와 밤새 살펴보던 차였다.

“으으...”

책에 코를 박고 있다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었다. 정말로 어디선가 끙끙 앓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페페?”

카우치를 침대 삼아 잠든 페페에게서 새어 나오는 소리였다.

등불을 가져가 비쳐 본 페페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푹 젖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래도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다.

“세상에, 이 땀 좀 봐. 페페! 정신 차려 봐. 페페!”

서둘러 페페를 흔들어 깨웠다.

좀처럼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페페가 억세게 악문 잇새로 억눌린 신음을 새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페페가 눈을 번쩍 뜬 순간.

“페페, 너 눈이...”

순간 등불에 비친 페페의 오른쪽 눈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았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길쭉하게 동공이 찢어진 호박색 눈동자.

그러나 그건 마치 내 착각이었다는 듯, 페페가 눈을 한 번 깜박이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겨우 악몽에서 벗어났지만, 페페는 탈진한 듯 몸을 추욱 늘어뜨렸다.

나는 땀에 젖은 페페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무릎베개를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악몽을 꿀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다.

“페페. 우리, 즐거운 걸 떠올려보자. 음,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오빠가 말하길 내일 저택에 손님이 오실 거래. 그러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가지 말고 방 안에서 뒹굴거리자.”

또 페페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내가 오빠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이대로 쭉 우리 집에 있어도 돼.”

그제야 페페가 가물가물 눈을 뜨고 날 올려다보았다.

역시, 아까 내가 본 건 등불에 의한 착각이었던 듯, 페페의 눈은 맑은 녹안이었다.

“페페, 세상에서 젤 맘 편한 게 사는 게 누군지 알아?”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다.

“돈 많은 부잣집 애완 고양이.”

“...?”

“아, 물론 네가 고양이라는 뜻은 아냐. 근데 내가 부자는 맞거든. 그러니까 널 부자네 집 애완 고양이처럼 잘 돌봐줄 수 있다는 뜻이지.”

페페가 픽, 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냈다.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완벽한 비웃음이었다.

으이구, 그래. 네가 여기서 계 탔구나, 하고 꼬리나 살랑살랑 흔들면 페페가 아니지.

“그리고 말야.”

나는 페페가 잠들 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이어갔다.

페페는 어쩐 일인지 가만히 누워 내 손길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감기는 흑발을 쓸어 넘기며 내일, 샤렌에게 페페의 거처를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어제 페페에게 말했던 대로 오전 내내 방 안에서 뒹굴거리다가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다.

1층의 홀이 소란스러웠다.

아무래도 샤렌이 말한 손님이 온 모양이었다.

나는 계단참을 내려오다 말고 슬쩍 홀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가문의 귀족이겠거니 싶었는데, 놀랍게도 무척이나 젊은 여자였다.

‘누구지?’

학자풍의 분위기를 풍기는 주황 머리의 여자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소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프랑 별장은 이 지역에도 알아주는 고택인데. 내부도 무척이나 훌륭하네요!”

여자가 바쁘게 몸을 돌릴 때마다 초록색 가운에 달린 황금색 브로치가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의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황금 사과와 사과를 둘러싼 새하얀 뱀.

푸른 가시나무에 소속된 용술사였다.

문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둘러 몸을 숨겼다.

“어서 오십시오, 엘리스 님. 날씨가 궂은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고생은요, 뭘. 이 저택 바로 뒤인걸요.”

“그럼 올라가시죠. 소가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런두런 인사말이 오가는 사이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향했다.

쾅!

문이 거세게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르륵 주저앉았다.

페페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바라보았다.

‘왜 용술사가 프랑 저택을 찾아온 거지?’

설마, 페페가 여기 있는 걸 아나?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때였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불쑥 용술사의 말이 떠올랐다.

초대. 용술사는 분명 초대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오빠는...

-사샤, 내일 손님이 오실 거야. 페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니까, 내일 하루는 방 안에서 지내는 게 어때?

오빠는... 용술사가 오늘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아마도 오빠가 용술사를 초대한 것이리라.

‘대체 왜?’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용술사를 불러들인 건 오빠답지 않았다.

저 용술사가 페페의 존재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적어도 오늘 하루, 페페를 집 안에 두는 건 좋은 생각 같지 않았다.

“딱 하루만 가출하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돈이 될 만한 액세서리를 모조리 쓸어 담았다.

그리고 페페에게 그가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초록색 망토를 입혀주었다.

“페페,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린 숨바꼭질을 할 거야. 아주 잠깐이면 돼. 손님을 피할 정도로만.”

한 손에 페페의 손을 꾹 쥐고 방을 빠져나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용사로 향했다.

눈보라 어찌나 거센지, 겨우 용사까지 오는데도 양발이 눈에 젖어 축축했다.

나는 잠시 페페의 손을 놓고 베베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베베, 이리 와!”

그러나 어쩐 일인지 베베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심소침해져서 고개만 땅에 박고 구슬픈 하울링 소리를 냈다.

“베베!”

초조함에 울컥 짜증이 치솟은 찰나였다.

우우웅-

용사 안의 모든 용들이 불안한 소리로 낮게 울부짖었다.

“뭐야? 다들 왜... 페페?”

불현듯 페페가 어느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보였다.

페페가 바라보는 곳.

저 멀리, 용사의 가장 안쪽에 처음 보는 지룡의 붉은 꼬리가 비쭉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손님의 용을 매어두는 곳이었다.

첨탑 용술사의 수호룡.

페페의 어깨가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그에 맞춰 겁에 질린 용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는 순간.

“페페, 정신 차려!”

나는 페페를 돌려세워 그를 꽉 껴안았다.

“널 돌려보내려는 게 아냐.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페페는 저택을 찾아온 용술사를, 그리고 그녀의 용을 아는 게 분명했다.

이렇게 손톱이 손에 박히는 것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쥘 정도로,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싸늘하게 식을 페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만가만 속삭였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숨바꼭질하자고 했잖아. 딱 하루만 숨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무엇도 보지 않는 것 같던 페페의 눈동자에 점차 생기가 돌아왔다.

“내가 어제 한 말 기억하지? 즐거운 걸 떠올려보자고. 다시 돌아오면 그날 하루는 내 방에서 게으르게 보내자. 하루종일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페페의 손이 겨우 온기를 되찾았을 무렵.

이번엔 페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베베를 억지로 끌어냈다.

“착하지, 베베? 잠깐 산책 다녀오는 거야.”

그러나 베베는 요지부동이었다.

“제발, 베베. 이번 한 번만. 응?”

내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베베를 고삐를 잡아당길 때였다.

페페가 처음으로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나와 베베에게 손을 뻗었다.

단 한 번의 눈 마주침.

그것만으로 베베는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완전히 복종해 우리가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다.

“이게 무슨...”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페페와 베베를 번갈아 보았다.

용도 짐승이라고 하나, 그 본성이 달라서 이렇듯 완전히 복종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주춤하는 날 페페가 베베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우리는 곧 베베에 기승했다.

용은 망설임 없이 달렸다.

그러나 눈보라가 너무 심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목적지만을 떠올렸다.

며칠, 아니, 하룻밤만이라도 쉴 수 있는 곳.

용술사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곳.

내 무례를 기꺼이 넘어가 줄 사람.

‘릴리의 저택으로 가자.’

그렇게 그저 베베의 본능에 유지해 길을 달리던 때였다.

우직.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분명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살얼음이 으깨지고 바스러지는 소리.

그 순간 땅이 꺼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구덩이 같은 곳을 잘못 디딘 듯싶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베베의 위에서 그대로 미끄러졌다.

“으악!”

본능적으로 뻗은 내 손을 페페가 꽉 잡아주었다.

그러나 페페는 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와 함께 떨어져 내렸다.

우리는 눈밭을 엉망으로 굴렀다.

입과 옷 속으로 눈이 들어오고 겨우겨우 눈을 뜬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날 꼭 껴안고 페페와 시커먼 입을 벌린 낭떠러지였다.

첨탑에서 온 방문객

“사샤가 없어?”

샤렌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마침 손님에게 ‘보호하고 있는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첨탑에서 온 손님, 엘리스는 호기심이 잔뜩 어린 까만 눈동자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샤렌을 동선을 좇았다.

이리저리 수하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던 샤렌이 뒤늦게 엘리스를 향해 정중한 축객령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 누구도 감히 황실과 신전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가시나무 용술사에게 이리도 무례하지 굴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스 괘념치 않고 고개만 까닥이곤 상냥하게 말했다.

“예, 첨탑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푸른 가시나무는 언제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장서니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샤렌의 얼굴에 일순 스치고 지나간 경멸을 엘리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제 용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공자님.”

“...그러죠.”

거친 날씨 탓인데 용사 안은 흥분한 용들의 울음소리로 야단스러웠다.

샤렌은 굳은 표정으로 사샤에게 선물한 지룡의 자리가 텅 빈 것을 확인했다.

아무래도 이 일대를 전부 수색해야 할 것 같았다.

“소가주님. 용들이 모두 흥분한 상태라 진정시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심해져서 일부 천룡은 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가주님... 사샤 아가씨의 귀중품이 모조리...”

“페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들리는 소식에 샤렌은 초조해졌다.

직접 나서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그의 수호룡 해피의 비행 준비를 시켜라, 말을 전한 순간이었다.

“혹시 프랑 저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진 않았나요?”

시종 웃는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용술사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보고들은 바 없군요.”

샤렌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페페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사샤를 찾는 것이 더 급했고.

“용들은 흥분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가령, 상위의 용을 마주했다든가?”

엘리스는 잔뜩 기가 죽은 제 수호룡의 콧등을 부드럽게 쓸곤 프랑 저택의 뒤편으로 보이는 첨탑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가늠하는 듯, 그녀의 시선이 제법 오래 머물렀다.

“어디서 야생 용이라도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럼 먼저 실례를.”

샤렌이 짧게 일별하고 훌쩍 해피에 기승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도약만으로 곧 하늘 높이 치솟아 거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과연, 제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용기사라 할 만한 실력이었다.

엘리스는 다른 사람의 마중을 온건하게 뿌리치고 후드를 깊숙이 눌러썼다.

떠나기 전 용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녀의 눈이 기묘한 열기로 반짝였다.

“그분의 목에 걸어 드린 방울이 잘 울려야 할 텐데.”

나긋하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곧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다.

늦게 태어나는 용은, 사람의 소원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화를 하면, 주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제국을 수호하는 녹음의 용, 세레네카도 초대 황제의 ‘대지를 푸르게 만들고 싶다’는 소원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만약 내 수호룡도 지금 내 소원을 먹으며 자라고 있다면, 내가 용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다.

‘그냥 날 수만 있는 애면 돼.’

나는 높은 낭떠러지를 올려다보며 우울하게 생각했다.

내게도 수호룡이 있었다면 이런 곳쯤은 단숨에 탈출했을 텐데.

‘그래도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천만다행인가.’

왼쪽 발목이 부어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난 것이 기적이었다.

낭떠러지 아래에 깔려 있던 눈이 푹신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페페가 날 꼭 안아 큰 부상을 막아준 덕분이었다.

다행히 페페도 다친 곳 없이 멀쩡해서 내가 다친 발목을 감싸 안고 오들오들 떠는 사이에 펄쩍펄쩍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커튼을 타고 올라 장식 장식장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페페는 보기와 다르게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게 얼음 빙벽이면 얘기가 달랐다.

일 미터 올라가고, 주르륵.

이 미터 올라갔다가 다시 주르륵.

몇 번 더 시도했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페페도 포기하곤 내 옆에 주저앉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되는 거 말고 먹을 걸 챙겨올 걸 그랬나 봐.”

춥고, 배고프고, 오갈 곳 없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딱 그 꼴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눈보라가 잠잠해졌지만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른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몰랐고, 밤이 되면 추위는 더 매서워질 것이다.

‘내가 괜히 도망치자고 설쳐서.’

만약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날 지켜보던 페페가 별안간 내 손을 꾹 잡아 왔다.

그나마 몸을 움직였기 때문일까.

페페의 손은 따듯했다. 그 손이 내 손등을 몇 번 도닥여 주었다. 마치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듯.

하지만 페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손발에 점차 감각이 없어졌다. 날은 계속 저물어 어느새 어렴풋이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페페, 자면 안 돼. 자면 얼어 죽어. 알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눈을 부릅뜨고 페페에게 말했다.

동화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얼어 죽기 전에 꼭 환청이나 환각을 보던데.

다행히 죽을 지경인 건 아닌지 정신은 명료했다.

“...샤.”

귀에 물이 찬 것처럼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문대고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뭐지. 설마 이게 환청인가?

나 죽어가고 있는 거야?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말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무려 페페가 한쪽 눈을 가린 채 날 흔들며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

“사샤. 자면 안 돼.”

그래... 페페가 말을...

‘말을 한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환각도 환청도 아니었다.

“페페, 너 말을...”

할 수 있었잖아, 이 자식이!

이렇게 멀쩡히 말을 할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사샤, 잠꼬대하더라.”

“...뭐?”

추위 때문에 사고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졌다.

여태까지 말 못 하는 척해놓고, 꺼내는 첫말이 그거라고?

맘 같아서 페페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고 싶었는데 손이 추위로 곱아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그냥 사람은 원래 피곤하면 잠꼬대 같은 걸 좀 한단 말야.”

입을 삐쭉이며 투덜거리는데, 문득 패페의 목에서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옅은 멍 자국 같은 게 보였다.

“페페, 너 목에 그게 뭐야?”

나는 손을 뻗어 페페의 목을 만져보려고 했다.

그러나 페페가 눈을 가리지 않은 나머지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낚아챘다.

“사샤는 너무 제멋대로야.”

나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만 깜박였다.

얘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나갔나?

그러나 페페는 정신 나간 사람답지 않게 명료한 녹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얼어 죽으면, 평생 원망할 거야.”

“그, 그건...”

울컥하긴 했지만 변명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네가 정말 싫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에 가볍게 뺨을 묻었다.

매정한 말과 달리 손에 닿는 온기와 행동이 너무 애틋해서, 나는 순간 말문을 잃었다.

페페의 입은 내가 밉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내가 읽어왔던 그의 행동과 표정은...

휘우웅-

그 순간, 돌연 몰아치는 강풍에 휩쓸려 갔다.

바닥에 쌓여 있던 얼어붙은 눈송이가 날려 순간 시야가 새하얗게 번졌다.

손안에서 페페의 온기가 사라졌다.

“페페?”

그리고 다시 시야가 또렷해졌을 땐.

“어디 가셨나 했는데, 이런 곳에 숨어 계셨네요.”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지룡에 올라탄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프랑 저택을 찾아왔던 첨탑의 용술사.

가까이서 본 그녀는 체구가 무척 작고 주근깨가 박힌, 어리숙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용.

희미하게 비춰 들어오는 노을에 비춰 피처럼 붉게 빛나는 그녀의 수호룡은 몹시 추악하고, 강대해 보였다.

흔히들 수호룡을 주인의 영혼이라고 한다.

그 말대로면, 저 여자의 영혼은 아주 끔찍하게 뒤틀려 있으리라.

찬찬히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여자에게선 아주 달콤하고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너무 농익어 속이 짓무르고 썩어버린 과육 향.

마침내 바로 지척까지 다가온 여자가 생긋 웃으며 말을 맺었다.

“조금 더 방울을 빨리 울려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 어쨌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황자님.”

첨탑에서 온 방문객

‘황자님... 이라고?’

말도 안 돼.

페페가 황자, 그러니까 남주라고?

하지만 아벨은 분명 백발에 오드아이라고-

주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다 발목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 꼴사납게 넘어지고 말았다.

그제야 여자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여자의 시선을 따라 그녀의 용의 새까만 눈동자도 나를 따라왔다.

등골을 타고 오싹 소름이 돋았다.

“프랑 영애, 맞으시죠? 영애 덕분에 저택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계셨다니. 당연히 사람들이 못 찾을 만하죠.”

이렇게 깊은 곳은, 다들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조그맣게 덧붙인 말이 어쩐지 협박처럼 들린 건, 비단 그녀의 뒤에 서 있는 흉악한 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어린 분노를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진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어쩌면 이 여자는, 이곳에서 페페만 데리고 떠난 후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 페페가 여자와 나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다.

“엘리스.”

아주 꼿꼿하고 흔들림어 없는 커다란 등.

지난 이주 동안 난 페페의 뒷모습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페페의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여자의 용이 으르렁거리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머리를 물렸다.

여자는 제 수호룡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곤란하다는 얼굴을 했다.

“농담이에요, 황자님. 그러니 그런 표정 지으실 필요 없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며 검지 손끝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걸 신호로, 여자의 수호룡이 머리를 하늘로 치켜 올리더니 그대로 불덩이를 토해내 하늘을 향해 쏘았다.

펑!

후끈한 열기와 매캐한 재 냄새.

어둡고 창백하게 물든 밤하늘에 여자가 쏘아 올린 불덩이가 밝게 터져 나갔다.

“이 정도 신호면 충분하겠죠. 그쪽 영애의 오라비도 이 근방을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 자, 황자님. 그럼 이제 탑으로 돌아갈까요?”

여자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페페는 그대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무작정 페페를 불렀다.

“페, 페페!”

페페의 걸음이 멈췄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돌아서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원작에서처럼 양쪽의 색이 달랐다.

이내 페페는 제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 내게 둘러주었다. 얼어붙은 몸에 따듯한 체온이 엉켰다.

나는 비로소 페페의 목에 난 멍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건 멍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주술이었다. 마치 짐승의 목에 두른 목줄처럼 생긴.

-조금 더 방울을 빨리 울려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방울.

저 여자가 단번에 우리를, 그리고 페페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페페가 여태 말을 하지 않았던 까닭.

‘목소리에 위치 추적 마법이 걸려 있던 거야.’

페페는 분명 평생 말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내가 멍청하게 굴어서.

“아, 안 돼.”

나는 페페의 소매를 붙잡았다.

“페페. 가, 가면 안 돼.”

시간을 끌자. 여자의 말처럼 오빠가 이 근방에 있다면 금방 나를 찾아올 것이다.

오빠의 용은 이 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 샤렌이 방금의 불꽃을 보고 날아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러나 그의 소매를 움켜잡은 내 손은 페페에 의해 너무 손쉽게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망토의 리본까지 어설프게 조여 매준 사샤가 입을 벙긋거렸다.

‘사샤, 잘 있어.’

그것으로 끝이었다.

샤렌과 여자를 태운 용은 몇 번의 도약으로 그 높은 절벽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간만의 차이로 샤렌의 수호룡이 별똥별처럼 떨어져 내렸다.

“...사샤!”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오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나는 피곤과 추위에 지쳐 정신을 놓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프랑 저택의 내 방 안에 있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자꾸 열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심한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끔벅끔벅.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움직이자 침대맡에 앉아 책을 읽는 샤렌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화났어?”

오빠가 책 너머로 내게 힐끗 시선을 주었다.

“아니.”

거짓말.

팔랑,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무정했다.

아무래도 단단히 삐친 모양이었다. 내가 깨어났는데도 본체만체하는 걸 보면.

내가 몸을 뒤척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샤렌이 급히 날 부축해 주었다.

그러곤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뜨근뜨근한 열이 오른 내 이마를 감싸는 오빠의 손은 차갑고, 크고, 단단했다.

“사샤, 열이 많이 나. 금방 주치의를 불러올게.”

아파서 그런가.

어쩐지 잔뜩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이마맡의 오빠 손을 내 두 손을 꼭 붙든 채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물었다.

“오빠. 페페는?”

일순 오빠의 손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반쯤 엉거주춤 일어섰던 샤렌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사샤. 페페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쩌면 오빠가 페페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내가 페페랑 친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날 위해서 그 여자에서 페페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

그 순간, 우습게도 나는 오빠가 조금 미웠다.

오빠는 왜 첨탑의 용술사를 초대했을까. 페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지?

그 애가 무슨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지를 상상하면 당장에라도 나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오빠가 미워, 하고.

나는 실수로라도 말이 새어 나올까 봐 입을 틀어막았다.

전생의 기억을 되찾기 전.

나는 아빠의 애정 어린 눈길을 한 번 받기 위해 아빠의 생일날 손수 꺾어 엮은 꽃다발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꽃다발을 본 아빤 그저 딱 한 마디만 했다.

-이런 가치 없는 걸 대체 뭐에 쓰란 말이지?

아빠의 눈에 내 선물은 꺾인 꽃의 잔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곧 꽃다발은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나는 그걸 보고도 별로 슬프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버려졌던 꽃이 오빠의 책상 위 꽃병에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걸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듯 보는 샤렌이 모습이 어쩐지 창피하고 분해서 못된 말을 하고 말았다.

-아빠가 버린 걸 왜 주워 와! 그건 쓰레기라고! 난 오빠가 이럴 때마다 진짜 미워!

샤렌은, 내 말을 듣고 미안한 듯 웃었다.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은 강해서 울지 않으려고 눈을 매섭게 뜨는 날 안고 오빠는 말했다.

-미안해, 사샤. 내가 못난 오빠라서 내 동생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했네.

그러고는 자신의 외투를 내게 덮어주어 내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마음껏 울게 해줬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그날, 선물을 한 당사자인 나보다 오빠가 더 상처를 받았다는 걸.

오빠가 하는 일 중 어느 것 하나 날 위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일도 분명 날 위한 거겠지.

그리고 사실 정말 미운 건, 오빠가 아니라 일을 이렇게까지 망친 나 자신이었다.

나는 페페와 원작의 남주, 그리고 이 생황에 대해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했다.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샤렌에게 말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화내지 않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줘.”

“괜찮아. 사샤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가시나무 첨탑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야?”

나는 오빠가 도망가기라도 할까 봐 아예 오빠의 팔 한쪽을 꼭 껴안았다. 아주 꽈악.

샤렌은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사샤, 세상에는 말이야. 가끔 어딘가 고장 난 것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

하고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나는 지독한 감기를 앓았다.

세상이 까맣게 침몰했고, 나는 끙끙 앓으며 악몽 속에서 무시무시한 무언가에게 쫓기고 또 쫓겼다.

아마 그러면서 뭔가를, 아주 간절히 빌었던 것 같다.

그날, 내 수호룡 알에 금이 갔다.

하지만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건 조금 나중의 일이었다.

“잘 들으세요, 황자님. 황자님은 제 허락 없이 이 방을 나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가시나무 첨탑의 가장 꼭대기 방.

그것이 그의 세계였다.

첨탑에는 황자님이 산다

소년이 머무르는 방은 몹시 사치스럽고 안락했으며 사방을 한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그곳에는 소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 심지어 그가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까지.

하루 세 번 때 맞춰 차려지는 호화로운 산해진미.

장인이 공들여 만든 장난감은 언제나 방 한쪽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비단으로 만든 옷은 깃털보다도 가볍고 부드럽게 몸을 감쌌다.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엘리스, 난 언제 이 탑에서 나갈 수 있어?”

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였다.

어렸을 적, 소년은 그의 수발을 드는 용술사에게 물었다.

“황자님은 왜 황자님이 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괴물을 될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라서.”

엘리스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었다.

황자님이 많이 아파서.

황자님이 남들과 달리 특별해서.

황자님이, 괴물을 될 자질을 타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황자님. 모든 건 황자님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어마마마도... 그걸 바라고 계셔?”

“그럼요. 황비님은 물론 황제 폐하께서도 황자님께 거는 기대가 크시답니다.”

그게 어찌나 달콤한 거짓말이었는지 깨닫는 건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아악!”

발작을 일으키는 소년의 발버둥을 저지하며 엘리스는 상냥하게 말했다.

“이게 다 황자님을 위해서예요. 어서 강해지셔야죠.”

주사를 맞을 때는 온몸의 관절에 바늘이 박힌 듯 고통스러웠다.

약을 먹을 때는 혈관을 타고 피가 아닌 불덩이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런 걸 어머니가 바라신다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거짓말.’

이제는 얼굴도 희미해진 부모에게 맹목적인 희망을 품을 정도로 소년은 순진하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부모님을 찾았으나, 그들이 탑을 찾아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을 때 소년은 희망을 버렸다.

눈가가 짓무르도록 울었다.

왜 이 탑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지문이 닳도록 신에게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엘리스 님! 황자님의 동조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호룡에게서도 반응이 보여요!”

예쁜 꽃분홍색 약.

언제나와 같이 달콤한 음료와 함께 그 약을 삼킨 후.

오른쪽 눈에 열이 올라 이대로 시력을 잃으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소년은 눈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이었다. 열이 오른 오른쪽 눈에 생전 보지 못한 풍경이 맺혔다.

수조에 갇힌 푸른 색의 거대한 몸체와 물거품.

수조를 둘러싼 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른들.

무력하고 살풍경한 지하 감옥.

소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아, 이건, 내 수호룡이 보는 풍경이야.’

지하에서 귀중하게 보호받고 있다던 그의 수호룡은 철창 같은 수조에 갇힌 채 주인보다도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실험은 성공할 수도!”

첩탑의 용술사들이 들떠 축배를 들며 소란을 벌였다.

소년은 꼭대기 방에서 열에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제발...”

나를 여기서 구해줘.

용의 눈을 가진 눈동자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마른하늘에 검은 번개가 내려쳤다.

그것은 소년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콰쾅!

거대한 폭발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처음으로 맡아보는 바깥 공기의 냄새.

소년은 약에 취해 멍한 머리로 생황을 가늠해 보려 애썼다.

“...아벨, 정신 좀 들어?”

그는 웬 낯선 여자에게 안겨 탑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따듯한 등과 상냥한 목소리. 소년은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의 온기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첨탑을 무너뜨린 여자는 소년을 그렇게 불렀다.

‘아벨’.

처음에 소년은 그게 자신의 이름인 줄도 몰랐다.

이름으로 불린 것도 처음.

탑을 나와본 것도 처음.

눈이 언 땅을 디뎌본 것도 처음.

바깥의 바람과 햇볕을 온몸으로 쫴본 것도 처음이었다.

분명 한때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바깥이었는데.

아벨은 새파란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탑 바깥은 몹시 건조하고 추워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미안,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제대로 겉옷을 챙겨오지 못했네.”

여자가 다급히 제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 아벨의 몸에 걸쳐주었다.

망토의 리본의 매주는 손은 야무지고 상냥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탑에 여자의 얼굴을 살필 수 없었지만, 후드 사이로 얼핏 분홍색 머리칼이 보였다.

“시간이 없어. 이제 곧 그 여자가 올 거야.”

그 여자. 아벨은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았다.

엘리스를 말하는 걸 테지. 아마 지금쯤 그가 없어진 걸 알아챘을 것이다.

아벨이 주먹을 꽉 쥐었다.

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탑을 벗어나서야 깨달았다. 그에겐 탑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주사를 맞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하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없었다.

그런 깨달음이 아벨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아벨, 이대로 곧장 언덕을 내려가서 숲을 가로지르면 저택의 담이 보일 거야. 그 담 한쪽에 무너진 틈새가 있는데, 너라면 충분히 몸을 통과할 수 있어.”

여자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게 언 아벨의 발에 제 신을 신겨 주었다.

그에겐 너무 큰 탓에 끈을 한참이나 당겨 꽉 조여야 했다.

“저택의 뒷문으로 들어가서, 2층 오른쪽 끝방. 장난감 상자 안.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 돼”

몸을 일으킨 여자가 아벨의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넘겨 주었다.

아벨이 무심코 입을 열려 했다.

그러자 여자가 검지를 세워 단호하게 아벨의 입을 막았다.

“쉿. 잊지 않았지? 탑 밖으로 나가면 네 목소리에 걸린 저주가 발동된다는 거.”

잊지... 않았다. 다만 한순간 충동을 참을 수 없었을 뿐.

‘누구인지 묻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굴에 떠올랐던 걸까.

여자가 작게 웃더니 아벨의 찬 뺨을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따듯한 음성.

처음으로 받아보는 타인의 호의.

어쩐지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이라 아벨은 어깨를 움츠렸다.

여자가 입혀 준 망토와 장화를 신고 아벨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세계로 걸음을 디뎠다.

걸음을 옮길수록 탑 안의 생활이 얼마나 안락했던 건지 깨달았다.

그곳에는 추위도, 고난도, 굶주림도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자가 해준 말을 끊임없이 곱씹었다.

-그곳에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어. 원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 곧 생기게 될 테니까.

여자의 말대로 장난감 상자 안에 몸을 숨겼고,

-네게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아주 예쁘고 똑똑한 여자애가 있을 거거든? 음... 널 납치하다시피 데려온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말을 못 하는구나. 어, 그럼 뭔가 임시로 부를 이름이 필요한데. 아, 페페는 어때? 맘에 든다고? 음음,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럼. 그럼 이제부터 널 페페라고 부를게.

-그 아이는 믿어도 돼.

아벨은, 그리고 페페는 자신을 인형으로 때려눕힌 눈앞의 여자애를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첨탑에는 황자님이 산다

프랑 저택의 사람들은 첨탑의 용술사들과 달리 친절했다.

그럼에도 페페는 제 수호룡의 눈으로 본 용술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저보다 키가 사람이라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고 말았다.

결국 프랑 저택을 찾아온 낯선 손님의 시중을 드는 건 모두 사샤의 몫이 되었다.

페페는 제 식사를 챙겨주고, 옷을 입혀주는 등 시중을 드는 데 제법 열심히인 여자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서툴러.’

탑에 유폐되었다고는 해도 황실의 핏줄.

그는 숟가락조차 들 필요 없을 정도로 호화스러운 시중인들의 보살핌들을 받으며 지냈다.

그러니 제 또래의 귀족 아이의 손놀림에 그의 눈높이에 찰 리가 없었다.

“자, 코코아를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맛이 별로야? 잠깐만, 설탕 더 넣어줄게!”

“...푸읍!”

“...아, 미안. 설탕을 넣는다는 걸 소금을 넣었네.”

소금 범벅인 코코아도.

“오늘은 이걸 입고 자.”

“...”

“어... 혹시 치마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괜찮아. 한 번 입어 봐봐. 다리 사이가 엄청 시원해서 바지 입는 게 불편해질걸?”

프릴이 잔뜩 달린 잠옷 드레스도.

“자, 바닥에 모포 깔아줄게. 여기서 자.”

“...”

“푹신하지 않아서 싫다고? 어후, 까탈스럽긴, 그럼 모포 두 장 깔아줄게!”

잠자리가 형편없어도.

페페는 참고 견뎠다. 그만큼 탑 밖의 세상이 만족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어쩐지 사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어졌다.

그 또래의 여자아이라서.

툭, 건들면 넘어질 만큼 연약해 보였으니까.

탑에서 그를 구해준 여자가 믿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 땀 좀 봐. 페페! 정신 차려 봐. 페페!”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손길이 너무 상냥해서.

페페가 악몽을 꾼 날이었다.

아니, 그건 꿈이 아니었다.

첨탑의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페페는 오른쪽 눈으로 제 수호룡이 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수호룡은 여전히 탑 지하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다.

탑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자신의 반쪽.

수호룡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탑 밖에 있었으나, 여전히 탑에 메인 몸이었다.

수호룡의 고통은 그의 고통이 되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삼켰다.

평소였다면 이불을 입에 물고 홀로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페페, 우리 즐거운 걸 떠올려보자.”

즐거운 거?

혼몽한 정신으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좇아 눈을 깜박였다.

페페는 즐거웠던 것이 뭐가 있었는지 떠올렸다.

모든 금은보화가 있는 사치스러운 방.

그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훈련된 시종들.

어쩌면 황제조차 부럽지 않을 정도의 진수성찬.

하지만 사샤는 그 모든 것보다 사샤가 실수로 소금을 넣어준 코코아를 떠올렸다.

달고 짜게 혀에 감겼던 괴상한 맛.

그걸 보고 깔깔 웃던 사샤의 웃음소리.

부드럽게 입가를 닦아두던 손길.

“페페, 언젠가 수도에 있는 우리 저택으로 꼭 놀라와. 봄에 놀러와야 해. 북부의 봄과는 엄청 다르거든.”

페페에겐 북부의 봄은커녕 겨울조차 몸소 겪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탑 밖의 세상은 황폐하고, 춥고, 앙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푸르고, 따듯하고, 풍요로웠다.

‘사샤.’

페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입속으로 불러보았다.

가슴께에서 간지러움이 퍼져나갔다.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저를 무릎베개해 준 여자아이를 올려보았다.

꽃잎 같은 머리칼.

밤하늘의 별처럼 눈동자.

그곳에 페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황급히 눈을 꽉 감았다.

‘뭐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몸에서 열이 나는 거 같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머릿속을 울리는 수호룡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다시는 그 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비명조차 내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어쩌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걸 꼭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페페는 생각했다.

페페는 빙벽을 등지고 몸을 웅크린 사샤를 바라보았다.

프랑 저택을 등지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와중, 지룡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어쩌면 다음 날이 밟아 햇볕이 쨍하며 빙벽이 조금쯤은 녹을 것이고, 그 틈새를 밟아 오르면 탈출할 수도 있을 테다.

페페는 자신 있었다.

수호룡의 시야를 훔칠 수 있게 된 이후부터, 그는 곧잘 제 몸에 흐르는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빠져 나갈 수 있어.’

종종 그의 속내를 놀라울 만큼 잘 읽는 사샤이기 때문에, 페페는 이번에도 사샤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이런 추위 따위, 그에겐 그다지 큰 위협도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가지 마...”

무심코 마주 잡은 사샤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페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졸음에 겨운 얼굴로 눈을 끔벅였다.

“오빠...”

잠든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페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샤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봄이 이곳에서 얼어가고 있었다.

‘어째서?’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정도로 연약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돌리는 페페의 눈에 투명하게 얼어붙은 빙벽이 보였다.

너무 투명해서, 노을빛이 비친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비춰 보일 정도였다.

빙벽에 비친 그의 오른쪽 눈은 샛노랬다.

기괴한 이형의 눈동자.

파충류의 것처럼 길쭉한 동공.

-황자님의 동조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실험은 성공할 수도!

첨탑의 용술사들이 말했던 동조율과 실험.

괴물이 될 자질.

용술사들은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고 만 것이다.

사샤가 연약한 게 아니었다.

‘내가 괴물이었던 거야.’

내가 괴물이 돼버린 거야.

페페가 추위도 모르는 제 몸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페페가 천천히 사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다.

“페페... 잠들면... 안 돼... 알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는 샤샤의 뺨의 손을 얹었다.

손안에 감기는 냉기를 느끼면서도 그는 웃을 수 있었다.

다시 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전만큼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정말로 탑에 갇혀 있어야 할 괴물이었고.

탑 안에서 밤마다 곱씹을 행복한 추억이 있었으며.

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페페는 기꺼이 제 목에 걸린 방울을 울렸다.

“...사샤.”

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던 이름을.

페페의 손이 조심스럽게 사샤의 뺨에서 어깨로 떨어졌다.

“사샤, 잠꼬대하더라.”

바보 같은 사샤 프랑.

그녀는 저택에 숨어들어 온 정체 모를 괴물을 숨겨줄 정도로 착해 빠져서 어쩌면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널 돌려보내려는 게 아냐.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엘리스의 지룡을 보고 겁을 먹은 그를 꽉 껴안으며 외쳤던 사샤의 말.

등에서 느껴지던 작은 온기.

‘나 같은 건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오른쪽 눈이 욱신거리고 목을 죄이는 주술을 감각이 느껴졌다.

페페는 마지막 미련과 애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에 가볍게 뺨을 묻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는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널 위해서 이대로 날 버려줘.

첨탑에는 황자님이 산다

가시나무 첨탑은 겉보기엔 아주 음침해 보였다.

과연 악의 무리 집단이라고 할까.

심지어 음울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가 휘황찬란했다.

‘나쁜 짓을 해서 끌어모은 거겠지.’

편견에 씐 콩깍지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내 눈에 이 첨탑만큼 악의 무리가 모인 곳은 없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원작에서 릴리가 이곳을 폭발시킨 것도 당연해.’

물론 릴리는 아벨이 탑에 유폐된 줄은 몰랐다.

단지 북부에서 빈민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단서를 쫓다가 가시나무 탑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납치되어 생체 실험의 도구로 죽을 뻔한 아이들도 구하고, 겸사겸사 탑에 유폐된 황자님도 구하고.

“우리 릴리가 참 할 일이 많겠어.”

더불어 나 역시도.

나는 현재 첨탑에 손님으로서 방문한 상태였다.

페페가 떠난 그날.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오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페페를, 아니, 황자님을 첨탑에서 빼내 달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공작가라 하더라도 황실의 핏줄을 맘대로 빼 올 순 없다는 걸 이해했다.

나는 우리 가문의 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빠가 날 위해 얼만큼 무리를 할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건 하나뿐.

-대신 나한테 언제든 첨탑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그건 가능하잖아.

샤렌은 한참 말문을 열지 않았다.

아마 내가 확신에 차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시치미를 뗐을 것이다.

‘하지만 원작에서 이미 사샤가 남주의 소꿉친구로 신나게 첨탑을 들락날락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오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단, 네가 첨탑을 향할 때는 나와 동행해야 해.

-엑.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그런데...?

-아빠가 과연 겨울마다 오빠를 별장으로 보낼까?

샤렌은 할 말을 잃은 눈치였다.

-올겨울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매해 겨울? 매해 겨울?

어쭈. 올해만? 이제보니까 얍삽하게 빠져나갈 계획이었구먼?

나는 봐주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몰랐겠지.

-뭘...?

-나랑 아벨, 아니, 황자님, 아니, 페페는 말이지.

꿀꺽. 샤렌의 목울대가 거칠게 움직였다.

-완전 절친이야. 소꿉친구.

-...대체 언제부터?

전생의 책 속에서부터라고 할까.

나는 오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문득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되었다.

그토록 원작의 결말을 피하기 위해 첨탑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 발로 찾아가는 꼴이라니.

“사샤, 오래 기다렸지?”

원작에 대해 한참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첨탑의 계단을 내려온 샤렌이 나를 가볍게 안아 들었다.

“페페는 만나봤어?”

“응.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셨어.”

오빠는 내가 페페를 만나기 전에 그와 나눌 말이 있다면서 먼저 첨탑의 꼭대기 방까지 올라 갔다 온 후였다.

나는 유심히 샤렌의 표정을 살폈다.

음, 역시. 내 예상대로 샤렌은 좀 우울해 보였다. 오빠는 ‘푸른 가시나무’라는 단체가 비인도적인 실험을 하는 용술사의 단체라는 건 말해주었지만, 그뿐이었다.

어째서 첨탑의 용술사를 프랑 저택에 초대했는지, 페페가 무엇 때문에 첨탑에 유폐되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물론 원작의 정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책에는 이때의 샤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본편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는 이미 동생을 잃고 반쯤 미쳐 있었으니까.

나는 오빠의 목에 팔을 감아 그를 꽉 껴안아 주었다.

“오빠. 괜찮아.”

“...”

“그러니까 표정 풀어. 진짜 오빠는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생각이 많아 보이는 오빠의 미간을 꾹꾹 눌러주며 말했다.

이놈의 주름살. 오빠는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미간에 주름을 잡고 다닌담.

“사샤,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널 닮아서 참 다행이야.”

샤렌은 이해할 수 없는 하곤 첨탑의 나선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다친 발목이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고 다닐 정도는 아닌데.

오빠는 내 전용 마차라도 된 것처럼 내가 땅에 발을 디디는 꼴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첨탑의 꼭대기.

새카만 원목 문이 보였다.

문에 걸린 다섯 개의 자물쇠와 복잡한 주술식들.

마침내 오빠가 나를 내려주며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오빠를 한번 돌아보곤 마른침을 삼켰다.

그리고 무거운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다.

끼익, 쿵.

문이 등 뒤에서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러나 나는 페페를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방 내부를 둘러보았다.

말 그대로 금칠을 한 방 내부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세상에. 페페이 입맛이나 취향이 묘하게 고급이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그러고보니까 페페는 황자였다.

내가 잠시 신분을 망각했네.

설마 이제와서 신부의 예를 지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페페?”

나는 생긋 웃으며 두꺼운 기둥 뒤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페페에게 물었다.

어째 표정이 좀... 떨떠름해 보이네.

“어, 음... 우리, 오랜만이지?”

어색하게 웃어봤지만 페페는 답이 없었다.

뭐랄까, 반겨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는 척도 안 해줄 거라곤 예상 못 했는데.

“왜...”

그때였다. 페페가 여전히 기둥 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여기에 온 거야?”

얇고 가는 미성.

페페는 이런 목소리였구나.

나는 마치 페페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었다.

“우쭈쭈주. 페페, 착하지? 이리 나와봐.”

“난 개나 고양이가 아니야!”

페페가 왈칵 성질을 냈다.

그러고 보면 첫날 커튼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던 페페를 불렀을 때도 저렇게 표정이 묘했는데.

‘난 그게 내 친절에 감명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화를 냈던 거였군.’

역시 사람은 말을 해야 해.

나는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알았어. 그럼 맘 풀리면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후. 페페가 슬그머니 기둥 뒤에서 나왔다.

그는 오른쪽 눈을 새카만 안대로 가리고 있었다.

아마도, 원작에서처럼 페페는 자신의 한쪽 눈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저렇게 가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지.

내게 다가오는 페페의 걸음이 불안했다.

나는 잠자코 페페가 내 앞까지 오길 기다렸다.

마침내 내 머리 위로 그림자가 졌을 때야 그는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하여튼, 낯을 너무 가려서 큰일이라니까. 자, 이리 앉아. 내 맞은편에.”

페페는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는 고양이 같았다.

겨우 궁둥이를 붙이고 앉은 페페가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왜 왔어?”

“페페, 눈은 왜 그래? 다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겁도 없이 왔냐고.”

“아프지는 않아?”

“사샤!”

결국 먼저 인내심이 닳은 건 페페였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가.

“...사샤.”

다시 부르고.

“...너는 여기 오면, 다시는 널 못 볼 거라고...”

계속 불렀다.

안대에 반쯤 가려진 그의 예쁜 얼굴이 소나기 맞은 백합처럼 축 처진 게 나는 안타까웠다.

“난 아직 널 만나면 안 돼. 이 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널 만나러.”

조심스럽게 그의 뺨의 두 손으로 감싸 고개를 들게 했다.

“페페. 이거, 벗겨봐도 돼?”

손끝이 조심스럽게 페페의 눈가를 훑었다. 물기 어린 한쪽 눈동자에 돌연 두려움 비슷한 것이 어렸다.

“싫으면 보지 않아도 돼. 하지만 페페. 혹시 이 눈 때문에 네가 나쁘다고 생각해?”

페페는 답이 없었다.

어째서 그런 걸 아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안대를 벗겨 그 안에 감추진 것을 바라보았다.

호박색의 이형의 눈동자.

그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있잖아, 페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

페페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그가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거라 상상하는 걸까.

나는 손끝으로 페페의 눈물을 닦아주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우리, 친구 할래?”

“...?”

페페의 속눈썹이 잘게 떨리고, 그 아래에서 호박 보석 같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저번에 너가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했었을 때 말이야. 네가 말했잖아.”

-나는 네가 정말 싫어.

“내가 정말 싫다고. 페페, 너 거짓말 진짜 못하더라.”

“그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 정말 내가 싫어?”

방금 전까지 애달프게 질렸던 페페의 얼굴이 이번에는 새빨갛게 물들었다.

“나, 난, 나는...”

“응, 응. 너는?”

내 손에 얼굴이 잡히는 바람에 눈조차 피하지 못하고 붉으락푸르락 얼굴만 붉히던 페페가 결국 빽 외쳤다.

“나는 네가 정말 싫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페페는 겨우 내 손에서 얼굴을 빼내더니 어깨가 오르락내리락하도록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 대뜸 앙칼진 태도로 요구했다.

“손.”

나는 영문을 몰라 페페에게 손을 내밀었다.

페페는 그대로 내 손을 가져와 그대로 뺨을 묻었다.

마치, 그날 헤어지기 전처럼.

나는 손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나지막하게 페페의 말에 대답했다.

“응. 나는 네가 좋아, 페페.”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덧붙였다.

“아, 물론 친구로서. 친구가 뭔지 알지?”

다시 고개를 드는 페페의 얼굴이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상궂게 구겨졌다.

물론 그래도 참 예뻤지만.

첨탑에는 황자님이 산다

가시나무 첨탑을 찾은 남자는 아주 우아하고 멋스러웠다.

그는 검은 코트에 묻은 눈을 털며 맞은편 상대에게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건강해 보이셔서 안심이 되는군요, 저하.”

창틀에 기대앉아 눈 덮인 프랑 저택의 지붕을 바라보던 아벨이 힐끗 남자를 살폈다.

프랑 공작 가문의 후계자, 샤렌 프랑.

벚꽃잎 같은 머리칼과 요요하게 빛나는 보랏빛 눈동자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아벨은 관심 없다는 태도로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샤렌은 괘념치 않았다.

“사샤가 전하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아벨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무기질적인 녹안을 마주하던 샤렌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태생이 고귀해 남 앞에서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였으나, 눈앞의 소년에게만은 평생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도 괜찮았다.

“전하 덕분에 동생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샤렌을 내려다보던 아벨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샤는...”

반쯤 충동적이었다.

때문에 아벨은 뒷말을 이을 수 없었다.

얼어붙은 낭떠러지 아래로 엘리스를 불러들였을 때.

아벨은 사샤를 구하려고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들인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 때문에 사샤가 죽을 뻔했는데, 무슨 염치로 그녀의 안부를 묻는단 말인가.

주먹을 꽉 쥔 아벨의 고개가 다시 창으로 향하려던 때였다.

“황자 저하. 저와 거래를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샤렌은 상대의 경계를 단번에 녹아내리게 할 만한 싱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미소도, 호의도 믿지 않았다.

“...거래라고?”

샤렌은 찬찬히 아벨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언젠가 전하께서 이 탑을 벗어나게 되면, 원하는 걸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샤에게 폐가 되지만 않는다면.”

아벨은 지척으로 다가온 샤렌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웃음을 지은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언젠가 탑을 벗어나게 된다고?’

그런 희망에 다시 이 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포기했다.

그날, 아벨이 사샤의 이름을 부른 건 그런 의미였다.

‘게다가 만약에 다시 만난다고 해도 내 눈이 이상하게 변한 걸 보면...’

문득 검은 안대에 가려진 오른쪽 눈동자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공자는... 어째서 내게 그런 거래를 제안하는 거지?”

부질없는 희망이라 생각했으면서.

아벨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창피해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후, 그의 머리맡으로 그림자가 지더니 돌연 샤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벨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저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압니다.”

그의 눈이 아벨의 작은 체구를 훑었다.

겨우 사샤의 또래였다.

자신은 동생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은 소년을 끔찍한 곳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첨탑의 용술사를 불러들인 걸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샤렌은 가끔 스스로가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꼭 그의 아버지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괴물이 된 거 같아서.

“제 여동생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사실은 아벨이 영영 탑에 유폐되어 사샤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서.

“그리고 사샤가 그걸 바라거든요.”

그러니 이건, 사샤가 살아 있는 한 지켜지는 제 알량한 양심일 것이다.

아벨은 아주 오래도록 샤렌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사샤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샤가 나 때문에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또한 저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만약에 내가 이 탑에서 나가게 된다면.”

탑으로 돌아온 후, 아벨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 생각이 너무 깊어 약과 주사에 의한 고통도 잠시 잊을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상념은 어떤 거대한 목표를 만들어냈다.

아벨은 전처럼 탑 밖에 무엇이 있는지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재앙. 푸른 가시나무 첨탑. 황실. 그리고 이 실험의 목적까지.

탑을 벗어나 사샤의 곁에 있으려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난, 황위를 노리게 될 거야.”

힘이 필요했다.

탑에서의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곧 힘이 될 것이다.

황실의 핏줄을 가진 힘은 권력이 될 테고, 권력은 곧 누군가를 비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테지.

“내가 황위을 노리는 것 역시 그것 역시 공자가 바라는 바야?”

샤렌의 냉철한 이성이 바쁘게 돌아갔다.

유폐된 3황자가 황위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 그가 이 가혹한 탑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다.

하지만,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한다면 프랑 가문은 더 이상 황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3황자가 황위를 노리는 이유는 아마도 사샤를 위한 것.

프랑 공작에게서 배운 가르침은 그에게 이 거래를 중단하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선 동생의 작달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 위해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 역시 제가 바라는 바이니, 더욱 힘껏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하.”

모처럼 프랑 별장이 분주했다.

사용인들은 활기를 띠며 분주하게 복도를 돌아다녔고, 식자재를 실은 마차가 하루에도 몇 대나 저택을 오고 갔다.

그리고 벌써 일주일 째. 여러 가문에서 보낸 선물들이 도착했다.

모두 날 위한 선물이었다.

과장하지 않고, 선물에 깔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선물의 산이 만들어졌다.

“사샤 아가씨. 보세요. 모두 이렇게 선물을 잔뜩 보내왔네요.”

헤나가 들떠서 내 머리를 정신없이 매만져 주었다.

원래도 손재주가 좋았지만, 요새 그 손기술이 어찌나 물이 올랐던지.

나는 헤나가 내 머리칼로 공작새를 만든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다행히 오늘은 양갈래를 높고 촘촘하게 땋아서 동그랗게 말아주는, 비교적 간단한(?)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흥분된 저택의 분위기랑 달리 나는 뻣뻣하게 긴장된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다.

바야흐로, 내 수호룡의 부화를 축하하는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주일 전.

내가 한참 밤잠을 설칠 때 벌어졌다.

“사샤 아가씨, 요새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어쩜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휘휘 저어주었다.

그러나 헤나의 말처럼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였다.

안색은 거무죽죽했고 눈 밑에 짙게 드리운 그늘까지.

딱 봐도 며칠 밤을 새운 얼굴이다.

당장 수도로 내려오라는 아빠의 편지를 땔감 삼으며 무시하는 샤렌.

오늘 새로운 수업이 하나 늘었다면 해맑게 웃는 릴리.

그리고... 요즈음 나를 썩 친밀하게 느끼는지 놀러 갈 때마다 내 소맷귀를 붙잡고 늘어지는 페페까지.

뭐, 이런저런 일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아마 나처럼 걱정 많은 여덟 살은 이 세상에 또 없을 테지만, 내가 밤잠을 설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왔다.’

며칠 전부터 내 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기묘한 소음이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을 죽인 채 귀를 들려왔다.

아작, 아작, 아작.

마치 살얼음을 발로 밟아 깨부수는 듯한 소리.

처음 며칠은 소음이 들를 때마다 헤나를 불렀다.

-헤나,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요? 혹시 악몽을 꾸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헤나가 올 때마다 귀신같이 그 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의 말대로 처음 몇 번은 정말 악몽을 꾸었나 싶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착각이 아니라는 걸.

며칠 밤잠을 설친 나는 머리맡에 기대놓은 부지깽이를 살며시 손에 쥐었다.

‘오늘이야말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겠어.’

살금살금 일어나 등불을 손에 쥐고 청각으로 방향을 잡으며 넓은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장식장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장식장? 장식장 안에 뭔가 있나?’

슬쩍 장식장 문에 귀를 댄 순간.

쾅!

“으악!”

장식장 문이 저 혼자 덜컹거렸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뒹굴었다. 그 바람에 등불이 바닥을 구르며 불이 훅 꺼졌다.

방 안의 유일한 불빛이 꺼지자 푸르스름하게 달빛만 방을 비췄다.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포 영화에서 보면 꼭 이럴 때 뭔가 튀어나오던데.’

그렇게 생각할 때였다.

끼이익. 장식장 문이 저 혼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튀어나와 방을 가로질러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

나는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잊고 후다닥 구석으로 못을 피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무언가가 있었다.

“헤나! 샤렌! 오빠! 샤렌!”

부지깽이를 꼭 쥐고 고함을 질렀다.

내 방과 가장 곳에 잠자리를 마련한 헤나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사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저기, 침대 밑에! 침대 밑에 뭔가 있어!”

심장이 덜컹거렸다.

생각해 보니 첨탑을 공격한 침입자도 아직 잡히지 않지 않았던가.

나는 헤나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소곤거렸다.

“장식장에서 나왔어. 내 방에 오랫동안 숨어 있어나 봐.”

내 말에 헤나의 얼굴이 덩달아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비장한 얼굴로 슬금슬금 침대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상체를 숙여 침대 밑으로 밀어진 이불보를 치켜드는 순간.

쾅!

“사샤! 무슨 일이야!”

용케 내 고함을 들었던지, 샤렌이 흐트러진 차림새로 문을 벌컥 열었다.

“꺄악!”

동시에 침대 밑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재빠르게 기어나와 헤나의 다리 사이를 지나쳐갔다.

“오빠! 잡아! 그거 잡아야 해!”

내가 소리치자, 샤렌인 제 곁을 지나 방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단번에 낚아챘다.

끼아앙!

울음소리가 무척 기괴하면서도 애초로웠다.

“뭐야, 이건?”

샤렌이 정체모를 것의 뒷덜미를 들고 달빛에 비춰 보았다.

빠아악!

뺙뺙!

오빠의 손에 덜미가 잡힌 그것이 꼭 병아리처럼 뺙뺙 울어댔다.

“새끼 멧돼지?”

“주방에서 도망친 걸까요?”

“여태 내 장식장에 새끼 돼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시선이 구슬프게 우는 새카만 짐승에게 향했다.

그러다 문득 샤렌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 혹시... 이거 새끼 용 아냐?”

내 시선이 시커먼 짐승의 등으로 향했다.

과연 콩알만 한 날개 같은 듯이 달린 게 보였다.

헤나가 허겁지겁 등분을 다시 밝혀 가져왔다.

고르고 윤이 나는 새카만 비늘.

보라색의, 파충류의 것처럼 날카로운 동공.

귀 옆으로 두 개씩 돋은 뿔은 자수정처럼 반짝였다.

샤렌의 말대로 아주 작은 천룡이었다.

마치 갓 태어난 것처럼 작고, 연약하며, 새끼 돼지로 착각할 만큼 무척 똥똥한.

“아가씨. 장식장 안에 아가씨의 수호룡 알이 들어 있지 않았던가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슬쩍 장식장 안을 들여다보니,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식장 안에 수호룡 알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파편만 있을 뿐.

‘그럼 설마 이 멧돼지 새끼 같은 게...’

“사샤. 아무래도 네 수호룡인 것 같은데?”

내 수호룡이었다.

수호룡이 태어나면 용의 탄생과 수호룡을 갖게 된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 파티를 연다.

귀족 가문의 경우 이 파티의 규모가 성대해 신관까지 초청해 세례를 받고 용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아주 간혹, 신관이 어떤 계시를 받고 수호룡에게 이름과 함께 신탁을 내리기도 한다.

‘뭐, 말이 신탁이지 사실은 이 있어 보이는 이벤트를 위해 대부분의 귀족들이 신관에게 뒷돈을 쥐여 준다지만.’

뒷돈을 얼마나 쥐어 주냐에 따라서 신탁을 얼마나 멋있고 있어 보이게 내려주느냐까지 달라진다니 말 다했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프랑 가문은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한바탕 난리를 겪고 있었다.

수도에서 열리는 파티가 아니라 북부의 저택에서 파티가 벌어진다는 점.

테러범이 아직도 잡히지 않아 다소 치안이 불안하다는 점 때문에 대대적으로 초대장을 보낼 수 없었다.

때문에 생각보다 소규모로 파티가 진행된다고 했지만, 나는 질릴 정도로 화려하게 변해가는 연회홀을 시무룩하게 올려다보았다.

“사샤,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테러 때문에 흉흉해 한동안 보지 못했던 릴리는 1순위 초대 멤버였다.

파티가 시작하기도 전에 바람같이 달려온 그녀는 웬일로 아주 예쁜 드레스 차림이었다.

샛노란 드레스가 그녀의 눈동자 생과 무척 잘 어울렸다.

내가 선물한 봉인석 머리핀도 무척 잘 어울리고.

평소 같았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칭찬을 퍼부어 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도 없었다.

“릴리, 내 용이 어떤지 아직 본 적 없지...?”

“응! 그래서 무척 기대돼. 얼마나 예쁠까.”

릴리가 눈을 반짝 빛내며 반색했다.

릴리가 품은 기대를 나도 한 적이 있었다.

그도 그럴게 프랑 가문은 대대로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천룡을 수호룡으로 삼아 왔으니까.

“그럼... 지금 한 번 보러 갈래?”

“...정말? 그, 그래도 돼?”

릴리가 당장 내 소매를 붙잡고 이보다 더 반짝일 수 없을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봤다.

용이 태어나고 일주일은 용이 가장 병약할 때이기 때문에 대체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다.

하지만 릴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나는 릴리를 내 용용이-애칭-가 머무는 방으로 데려갔다.

마침내 용용이가 머무는 방문이 열리고, 사샤가 놀란 얼굴로 외쳤다.

“저기, 사샤... 암만 찾아봐도 여기 없는데...?”

“뭐?”

릴리의 말에 나도 서둘러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가구도 몇 개 없는 방에는 숨을 곳도 없을 텐데, 정말 그 어디에도 용용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 정말!

나는 당장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종의 입구를 막고 있던 천을 빼내 마구 종을 흔들었다.

종소리를 들은 복도의 사용인들과 기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사샤 님의 종소리다!”

“용용이가 또 탈출했다!”

“용용이를 찾아라!”

“용용이를 또! 또! 찾으랍신다!”

대체 이 탈출이 몇 번째인지!

아직 어려 날 수도 없을 텐데 용용이는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꽉 닫아놓은 방을 아무런 흔적없이 탈출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윽고 저택 전체에 용용이의 현상수배가 내려졌다.

“사샤. 괜찮을까? 아직 어린 용인데... 길을 잃거나 납치된 거면 어쩌지?”

릴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지만, 나도, 유달리 걱정이 많은 헤나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용용이가 갈 곳은 뻔했기 때문이다.

“사샤 아가씨! 용용이를 찾았습니다.”

“거기지?”

“예에. 또 그곳에서 발견되었어요.”

나는 종을 다시 허리춤에 차고 하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훈훈한 음식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

바로 주방의 창고에서 용용이는 발견되었다.

나는 거의 공처럼 똥똥한 용용이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냅다 목청을 높혔다.

“용용아! 그런 거 먹으면 내가 탈 난다고 했어, 안 했어!”

숙성을 위해 한편에 숨겨 높은 쿠키 반죽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먹던 용용이가 꼬리를 바짝 세웠다.

볼록한 배와 입 주변, 손이고 발 할 것 없이 찐득한 반죽투성이었다.

뺘아아.

용용이는 나를 한 번 보고 구슬프게 울면서도 손 끝에 묻은 쿠키 반족을 핥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달랑 용용이를 들어 올렸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됏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사샤, 혹시 그게 네... 수, 수호룡이야?”

내 곁을 졸졸 따라다니던 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요 며칠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수호룡의 탄생 축하 파티에는 사실 귀족들 사이에서는 품평회라고 불렸다.

새로 태어난 수호룡을 두고 품평을 하며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대는 것이다.

오빠는 물론 우리 가문의 천룡은 대대로 많은 귀족들의 동경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니, 우리 용용이는...’

사람들이 우리 용용이를 보고 수군거리면 어쩌지.

나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이 아빠에 귀에 닿을 것을 걱정했다.

우울하게 용용이의 손에 묻은 반죽을 닦아주려 할 때였다.

“너, 너무 귀여워! 우와, 사샤랑 되게 닮았어!”

“...?”

뭐지. 이 칭찬인지, 욕인지 구별이 안가는 기분은?

나는 힐끗 릴리를 살폈다.

“저 빵빵한 뺨 좀 봐. 너무, 너무 귀여워. 사샤, 용용이 볼 한 번만 만져 봐도 돼?”

릴리가 하도 간절하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가 조심스럽게 용용이를 뺨을 누르고, 찹쌀떡처럼 속 손가락 끝이 살에 파묻혔다.

“으으, 이 뺨 좀 봐. 갓 구워낸 빵처럼 말랑말랑해.”

뺘아아.

용용이가 귀찮다는 듯이 릴리의 손을 뿌리치고 내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나는 코알라처럼 내 다리에 달라붙은 용용이와 그 주변을 뱅뱅 돌려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릴리를 보며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생각해 보면 남들의 시선 따위가 뭐 어떻다고.

내 눈에는 내 수호룡이 최고로 귀여워 보이고, 나랑 젤 친한 친구도 저렇게 내 용을 귀여워 해주는걸.

라고 생각했던 몇 시간 전의 날 몹시 때려주고 싶다.

파티에 참석한 귀족들이 쑥덕이는 소리로 연회홀은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부채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감출 수 없는 비웃음이 눈에 그득 담겨 있었다.

“대대로 기품 있는 천룡을 선보이더니. 이번에는 영 꽝이네요.”

“생긴 게 꼭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새카만 새끼 멧돼지 같지 않나요?”

“어휴, 참. 프랑 공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누가 아니래요.”

다 들렸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내 무릎에 앉은 용용의 귀를 막아주었다.

귀가 썩는다, 썩어. 우리 용용이가 저런 걸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지.

이윽고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가열되어서 어느새 초청한 신관이 태어난 용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샤렌이 초대한 노사제는 북부에서 가장 큰 신전을 담당하는 고위 사제였다.

그는 인자한 얼굴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용용이의 머리에 가볍게 법봉을 얹었다.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군요. 부디 이 아이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기를.”

인자하게 말한 노사제가 미리 준비해 왔던 양피지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펼쳤다.

용용이의 이름을 받는 순간이었다.

괜히 내가 다 두근두근한 마음에 나는 용용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프랑 가문의 두 번째 자식의 수호룡. 곧은 흑색 천룡. 그 이름은 파이시스로 하겠습니다.”

파이시스.

수호룡의 이름은 대체로 고대어로 지어지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유추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감이 마음에 꼭 들었다.

‘줄여서 파이. 파이라고 불러야지.’

“잘 부탁해, 파이.”

내가 파이의 귀에 짧은 인사를 속닥인 순간이었다.

진작 끝난 줄 알았던 사제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로 이어 파이시스에게 내려온 신탁을 읊어주겠습니다.”

신탁...?

나는 오빠를 힐끔 째려보았다

신탁 나부랭이 같은데 돈 쓰지 말라니까!

그러자 오빠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표정은 꼭 진짜 억울해 보였지만... 갈수록 연기가 늘어서 큰일이다.

분명 내가 파이 때문에 맘 상해 한다는 걸 눈치채고 기 살려 주겠다고 뒷돈을 건네 신탁을 준비하도록 하거겠지.

‘그래. 날 위한 마음이었을 테니까 봐주자.’

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 노사제의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노사제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용용이, 아니, 파이를 바라보았다.

“허, 이거 참. 세계용 님의 뜻이 그렇다면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노사제가 엄숙한 얼굴로 선언했다.

“세계용님의 계시를 받아 신탁을 내리노라. 많은 여행을 떠나는 자. 세계용 님의 가호를 받으며 영원을 살며 충직한 세계의 문지기가 될 자. 그리하여 파이시스를 시계 태엽과 운명의 파괴자의 칭호를 내리겠습니다.”

“...?”

뭐야, 그게?

연회홀이 사람들의 소곤거림으로 웅성거렸다.

대체로 신탁이란 건 모호하고 아주 압축적이라 짧은 한 두 마디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있어 보이게 말한다니?

세계용 님의 가호?

영원을 산다고?

게다가, 뭐?

‘파괴자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오글거리는 칭호야.

아니, 신관 영감. 이게 무슨 중2병 돋는 신탁입니다!

대체 뒷돈을 얼마나 받아먹은 거야!

첨탑에는 황자님이 산다

한동안 북부의 사교계에서는 우리 파이의 칭호로 난리가 났다.

소문은 크게 두 가지고 나뉘었다.

하나. 그 장대한 신탁을 받기 위해 프랑 가문이 얼마나 많은 뒷돈을 썼는가.

둘. 슈테인 가문의 신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는 도통 샤렌이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니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릴리. 네 신탁이 ‘시계 태엽과 운명의 수호자’였다는 거지?”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물론 원작을 읽은 독자로써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릴리는 다소 상기된 낯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샤와 비슷한 신탁을 받다니. 역시 우리 둘은 인연이 있나 봐.”

릴리는 잔뜩 흥분해서 외쳤지만, 글쎄.

나는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릴리는 수호자이고, 나는 파괴자.

어감으로 따지면 내 쪽이 썩 좋은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작의 내용이.

<실낙원>에서 릴리는 다름 아닌 주인공이었고, 나는 초반에 죽어 사라질 악역 조연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원작에서는 사샤의 신탁에 관한 내용이 전무했으니 알 수가 없네.’

아니, 신탁뿐일까.

아예 사샤의 수호룡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참 악역 조연의 분량에 가차 없는 작품이었다.

“나중에라도 뭔가 알게 되면 말해줘.”

“응. 당연하지. 그런데, 사샤.”

릴리가 어쩐지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물었다.

“오늘... 어디 가?”

“응?”

“어쩐지 외출하는 기색이길래.”

나는 릴리의 시선이 내가 손에 쥔 양손에 향한 것을 발견했다.

뭐, 말해주지 못할 것도 없지.

“첨탑에 가보려고.”

“첨탑? 갑자기 거긴 왜?”

음, 뭐라고 설명해줘야 릴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첨탑을 무너뜨려 남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별건 아니고, 내가 요새 새로 사귄 친구가-”

“...친구?”

탁. 데구루루.

릴리의 손에서 찻잔이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이미 다 마신 후라 옷이 젖지는 않았지만, 어째 릴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릴리? 왜 그래? 괜찮아?”

“어... 응... 그래, 사샤는 나 말고도... 친구가 있었구나... 친구가...”

“...?”

나한테 다른 친구가 있다는 게 왜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지.

‘혹시 릴리는 내가 친구가 자기밖에 생각한 건가?’

아,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릴리가 보기에는 내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페페, 아니, 아벨이라고 있어. 나중에 꼭 소개시켜 줄게.”

“아냐... 필요... 없...”

“응? 뭐라고?”

“너무 좋다고 했어.”

릴리가 어쩐지 무척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

그날 첨탑으로 향한 날 마중 나온 건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엘리스.

사람 좋은 인상과 어울리지 않게 페페를 지독하게 몰아붙이는 용술사.

저절로 내 표정은 싸늘해졌다.

그럼에도 엘리스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소가주님, 프랑 영애. 요새 정말 자주 오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시선이 힐끗, 내가 품에 안고 있는 파이에게로 향했다.

너무 어린 용을 주인의 곁에서 떼 놓은 것도 용의 정서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일부러 데려왔는데.

어쩌면 두고 오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외투 안으로 파이의 얼굴을 꽁꽁 감춘 후, 오늘은 돌아가 달라는 엘리스를 거절을 뿌리쳤다.

“페페의 얼굴을 보러 온 거야. 그 애 얼굴만 보면 된다고.”

“다른 때 같으면 얼마든지 아가씨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황자님께서 많이 지치셨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영애. 오늘은 아니에요.”

날 막아서는 엘리스의 얼굴에서 단호한 경계가 읽혔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녀의 뜻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다.

샤렌이 내 표정을 힐끗 살피고 엘리스의 잡아 세웠다.

나는 그 틈에 얼른 첨탑의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허억. 헉.”

오늘따라 유난히 숨이 찼다.

파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어떤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 숨을 고르다가 두드렸다.

“페페, 나 사샤야. 들어가도 돼?”

“.....”

페페는 대답이 없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허락도 없이 문고리르 돌렸다.

그러나 문을 요지부동이었다.

안에서 잠근 것이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안절부절못하며 페페를 불렀다.

“페페, 얼굴 한 번만 보자, 응? 진짜 딱 얼굴 한 번만 보며 돼. 네가 잘 있는지만 보고 싶어서 그래.”

“...”

“아님 목소리라도...”

“...”

“기, 기척이라도 내주면 안 될까?”

나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기운이 쭉 빠지며 달에 힘이 풀렸다.

페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내 품 앞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파이가 몸을 꿈틀거렸다.

뺘아아아.

아직 너무 어려 제대로 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파이.

파이가 내 외투 사이로 고개를 내밀곤 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어떤 낌새를 눈치챈 것처럼.

“파이?”

파이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다고 느낄 때였다

쩌억. 파이의 입을 벌어졌다.

아이러니하지만 뜨거운 열감이,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잠, 잠깐, 파이. 너 대체 뭘...”

콰앙. 파이에 목구멍에 맺혀 있던 것이 곧장 문을 쏘아져 나갔다.

“꺄악!”

나는 당장 상체를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매캐한 연기도, 그리고 날아간 문의 파편도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는 건 그저 문 위에 덧그려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주술진이었다

“...이게 뭐지?”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겁이 없어지는 걸까.

나는 파이가 토해낸 그 주술진에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고.

“...어?”

이윽고 내 몸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힘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주술진 안으로 끌려 들려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페페의 방 안에 있었다.

여전히 문은 꽉 닫혀 있었고, 아무것도 부서지거나 날아가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문을 통과한 것이다.

“...파이, 너 설마...?”

세상에. 입이 쩍 벌어졌다.

신출귀몰하던 파이의 도주 경로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늦게 태어난 용에게는 신묘한 힘이 있다더니.

파이는 공간 이동 마법을 타고 났던 것이다!

파이가 너무 대견해 그를 꼭 껴안고 한바탕 얼싸안고 싶었지만, 곧 내 눈에 띄는 뭔가로 인해 행동이 멈췄다.

어두운 페페의 방 안.

페페의 침상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다.

페페였다.

페페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문을 열어달라는 내 애원은 무시했던 모양이었다.

“페페, 자?”

혹시나 싶어서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물었다.

그러나 페페는 자는 것 같지 않았다.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는 있는 페페의 기척이 느껴졌다.

“페페, 왜 그래? 나 사샤야.”

나는 침대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덜덜 떠는 페페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내 눈에 이불 밖으로 빼꼼 새어나오는 새하얀 머리칼이 모였다.

돌연 목이 메는 기분이었다.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새까많던 페페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꼭 원작 속 남주처럼.

혹시라도 신음이 새어나올까 봐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사샤.”

이윽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이불 밖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도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사샤가 물었다.

“내가 괴물이 돼도 여전히 친구로 지내 줄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서 얼굴이나 보여줘.”

페페가 그 뒤로 얼굴을 보여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천천히 그를 덮은 이불이 거둬졌다.

그 아래로 눈물에 젖은 페페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상한, 이상한 걸 먹었더니,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

“...”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었어.”

페페는 마치 자기가 잘못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처럼 울먹였다.

부디 내 표정이 평소와 같길 바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뻐, 페페. 꼭 눈 같아.”

“...진짜?”

“응, 그러니까 괴물 같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 하지마. 나 그럼 정말 속상해.”

내가 일부러 엄하게 말하자 페페가 조금 찔끔하는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짓무른 페페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매만져 주었다.

코가 매워지고 찔끔 새어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으면서.

결국 원작 속 남주처럼 된 페페의 등을 그저 하염없이 토닥여 주었다.

사시사철 탑 안에서만 지내는 아벨에게 계절은 의미가 없었다.

다만 봄.

언제부턴가 페페는 봄이 무척 싫어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샤가 북부를 떠나 수도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어느 틈엔가 사샤보다 키가 훌쩍 커진 페페가 유일한 탑의 방문자를 보며 물었다.

“이제 가면 또 내내 못 보겠네.”

페페의 디저트를 탐내다 마카롱 하나를 입에 넣은 사샤가 입을 오물거렸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있어, 페페.”

첨탑에 꼭대기 방에는 둘뿐이 없는데도 사샤는 부러 주변을 경계 어린 눈초리로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페페 쪽으로 조심스럽게 상체를 숙였다.

뺨에 닿아오는 사샤의 숨결.

분홍빛 머리칼에서 풍기는 옅은 꽃의 냄새.

페페는 순간 불에 데인 듯 움찔하며 몸을 물렸다.

“갑자기 왜 그래?”

사샤가 의아하게 물었고.

“그러게. 정전기가 났나.”

페페가 자신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양 뺨을 긁적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사샤가 페페의 귀에 귓속말을 소곤거렸다.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페페가 침중한 낮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 왜!”

단호한 거절에 사샤의 볼이 빵빵해졌다.

사샤가 입술을 삐쭉였다.

“너무 위험하잖아. 혼자 수도와 북부를 왔다 갔다 하겠다니, 제정신이야?”

“나도 이제 열두살이다, 뭐!”

“태어난 지 십이 년 밖에 안 됐다는 걸 어리다고 하는 거야.”

며칠 밤을 세운 제 장대한 계획이 단번에 거절당하자 사샤는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다.

등을 돌려 앉아 몇 번이고 한숨만 내뱉다가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

“용차를 타고 오겠다는 게 아니야. 파이를 타고 올 거란 말야.”

“네가 파이에 기승하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한 일인걸.”

페페가 힐끗 방구석에서 날고기를 먹어치우는 파이를 쳐다보았다.

파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뼈대가 굵은 걸 보아 최소 사람이 탈 수 있는 중형종까지 성장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 성장을 하고 난 후의 이야기다.

한창 성장기인 파이는 아직 사람을 타고 날 만큼 날개 힘이 좋지 못했다.

“아냐. 파이를 타고 나는 게 아니라, 파이의 문을 이용할 거야.”

“...제발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해줘, 사샤.”

페페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사샤는 무시했다.

파이의 문. 그것은 파이가 지닌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었다.

늦잠을 잔 용으로서 파이가 지닌 특별한 힘은 바로 공간과 공간을 잇는 주술진, 일종의 문을 만드는 능력이었다.

“나랑 파이가 그 힘을 얼마나 잘 다루는데. 잘 봐.”

사샤가 벌떡 일어나 파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검지와 엄지를 세우고, 검지 끝으로 빈 허공을 가리켜 방아쇠를 당기듯 손짓했다.

그 손짓에 맞춰 파이가 입을 쩍 벌렸다.

뒤늦게 사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깨달은 페페가 기겁해 말렸다.

“사샤, 이곳에선 안-”

그러나 한 발 늦었다.

슈욱- 펑!

파이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간 기묘한 빛덩어리가 벽에 쏘아져 복잡한 마법진을 만들었다.

파이와 그의 주인만이 쓸 수 있는 문.

사샤가 망설임 없이 파이와 함께 주술진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이윽고 둘은 주술진에 빨려 들 듯 사라졌다.

볼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긴 하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샤...?”

어느새 홀로 남게 된 페페가 조용히 사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사샤. 어디 있어?”

여전히 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사샤, 진짜 간 거야?”

페페가 시무룩해져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왁!”

천장 한쪽에서 별안간 번쩍 주술진이 생겨나더니 사샤와 파이를 토해냈다.

“어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삼 일만에 수도에서 북부로 오는 게 내 계획이야!”

사샤가 제가 깔아뭉갠 페페를 내려다보면 물었다.

“...”

“.....페페?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네가 내 위에 올라탔잖아.”

“아, 무거워서 그렇구나. 미안, 미안.”

사샤가 벌떡 일어나 얼른 비켜주었다.

페페는 주춤주춤 몸을 일으켰다.

얼굴에 열이 올랐다는 게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어쨌든 이게 내 계획이야. 잘만 되면 매해 봄, 여름, 가을마다 파이와 함께 탑에 올 수 있을 거야.”

사샤가 웃으면 당차게 말했다.

봄, 여름, 가을.

그 계절마다 페페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달콤한 일이라고 페페는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 해의 겨울.

잔뜩 심통이 난 사샤가 첨탑을 찾아왔다.

“이 배신자! 네가 오빠한테 내 계획을 다 일러바쳤지! 덕분에 파이 곁에 올해 내내 감시자가 붙었잖아!”

“어쩔 수 없었어.”

페페는 전보다 더 키가 작아진 페페의 동그란 머리통을 신기하듯 쳐다보며 대답했다.

사샤의 안전에 있어선 샤렌과 그보다 더 뜻이 잘 맞을 순 없었다.

그는 사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녀의 손을 가져와 뺨을 비볐다.

쌕쌕거리던 사샤의 호흡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는 그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샤.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

“흥, 네가 말도 안 되게 커진 거거든? 대체 뭘 먹고 그렇게 크는 거야? 매해 겨울 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구.”

그 말 그대로였다.

사샤는 매번 겨울마다 페페의 성장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프릴과 리본이 잘 어울렸던 우리 페페는 어디로 갔담.

가끔은 서글픈 척,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겨울이 찾아왔다.

릴리가 가시나무 탑을 완전히, 격파하는 그날이.